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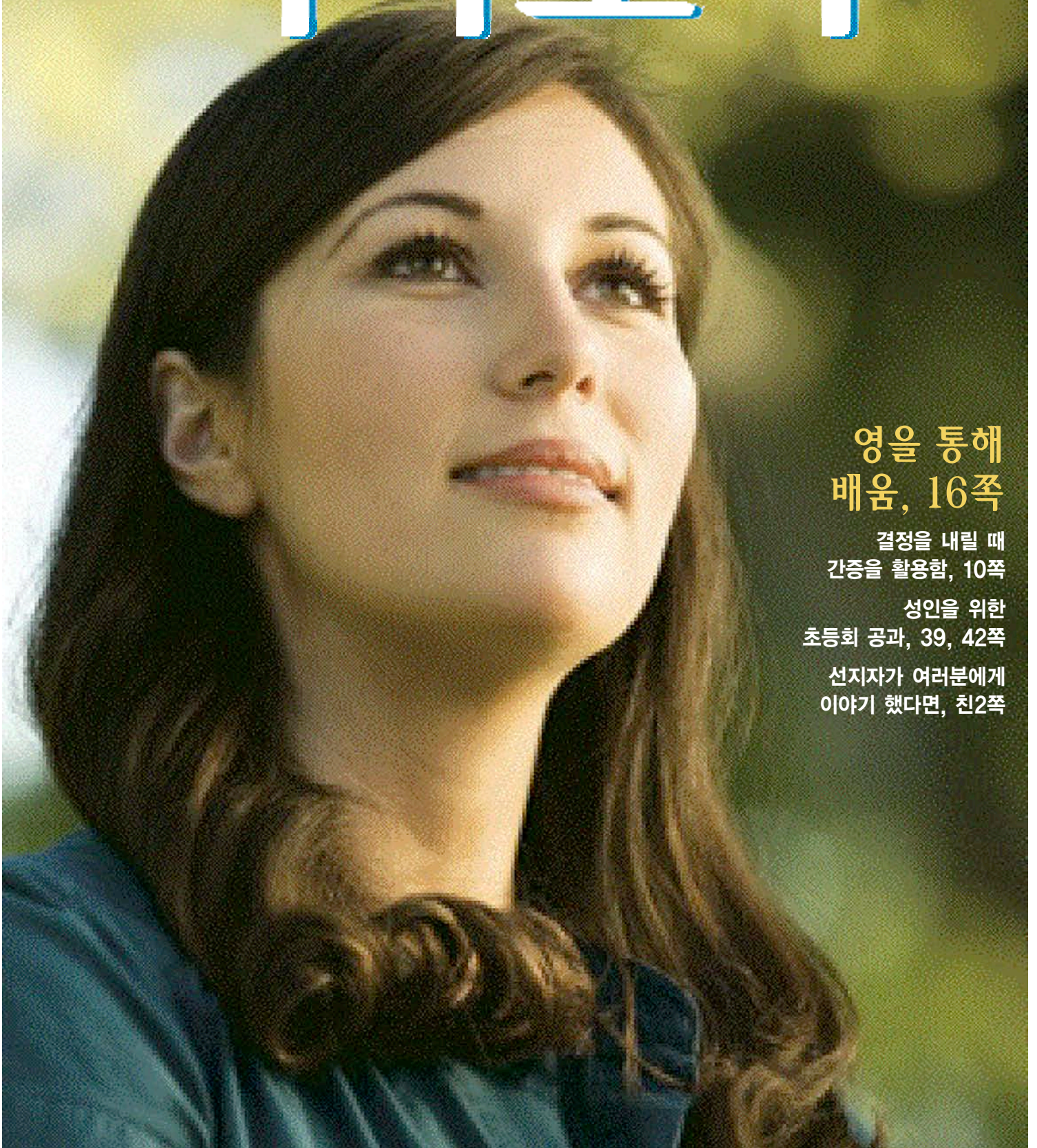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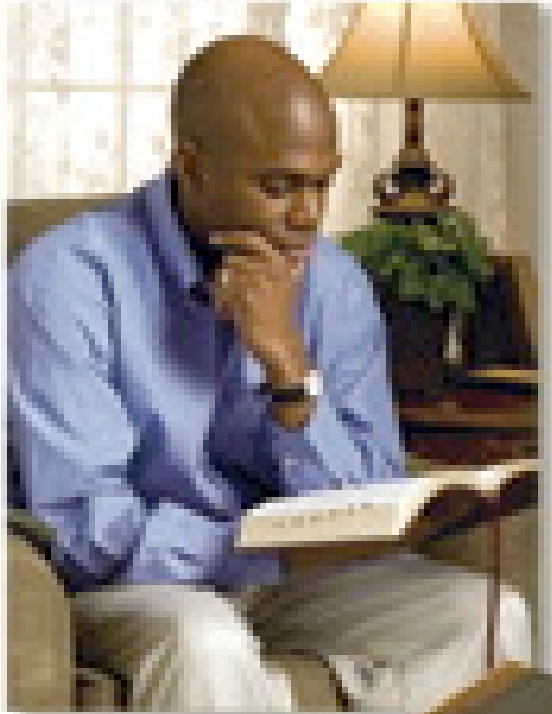
영을 통해
배움, 16쪽

결정을 내릴 때
간증을 활용함, 10쪽

성인을 위한
초등회 공과, 39, 42쪽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했다면, 친2쪽





주

남께서는
우리에게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교리와 성약

88:11)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배움에 관한 140개
이상의 경전 구절 가운데 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배움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부지런한 학습의 힘”, 16쪽 참조



2008년 9월호, 제45권, 제9호
리아호나 02289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다이터 에프 후츠토르프

심사도장원: 보이드 케이 패커, 앨 톨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우스, 엠 라셀 벨러드, 조셀 바 워스킨,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얼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캔들

고문: 게리 제이 콜웰먼, 케네시 존슨, 요시히코 기쿠찌,
더블류 더글라스 생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상임 편집인: 매리 할라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런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칼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벨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드, 멜리사 매릴, 마이클 말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카크, 주디스 엠 팔라, 조슈아 제이 퍼지, 제드 페르스, 켈리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롤니, 돈 앨 설, 제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상임 비서: 로렐 투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기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벨 캔벤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리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킴
핀스타이어,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킵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날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10호, 제45권, 제9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8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원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의 변경된 주소를
배부패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 편집인 혹은 지시자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투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September 2008 Vol. 32 No. 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
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리아호나, 2008년 9월호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하나가 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16 부지런한 학습의 힘 **제이 이 쟈슨 장로**
- 21 칠판: 교육을 위한 도구 **롭 존슨**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잠재력에 대해
가르쳐준다
- 26 후기 성도의 소리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카를로스 에이 델 룽고**
가족 역사의 추억 **스티븐 시 영**
핀란드에서 찾은 보물 **주디스 앤 로루넨 맥닐**
어머니의 일기장 **에드나 에프 캔들러**
- 36 물문경의 교훈: 주님을 바라봄 **메리 앤 쿡**
- 39 초동회 노래를 통해 받은 축복 **제니퍼 에이 린**
- 42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행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제니 피데릿 데 라 마자**
- 48 애독자 편지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음
제언들은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과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한다.

“지식을 구함으로써
신앙을 강화함”, 10쪽: 이
기사를 공부하면서 가정의 밤 간식을
만든다. 모든 가족들에게 조리법에
나오는 재료를 한 가지씩 할당한다.
[가족과 함께] 각 재료들의 중요성과 그
재료들이 단지 조리 방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간식을 만드는 동안 이 글에
있는 다섯 가지 원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원리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토론한다.

“부지런한 학습의 힘”

16쪽: 제이 이 쟈슨
장로가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으로부터 배운 네 가지 학습
방법을 읽는다. 네 가지 제언이 복음을
훌륭하게 배우는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가족들에게 훌륭한
복음 연구를 위해 이 제언들을 어떻게





복시점지. 에프디. © ARTBEATS

어린 자, 제이 브라이언트 와드

주후 34년, 예수그리스도께서 풍요 땅에 모인 백성들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은 “어린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시더라.

“그리고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하시더라”

(제3니파이 17:21~23)

이번 호에 숨겨진 네덜란드어 정의란 반지를 찾으면서
기도가 여러분이 옳은 일을 선택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친11 색칠하기



청소년

- 8 그 일의 책임자 조 병햄
- 10 지식을 구함으로써 신앙을 강화함
쿠엔틴 엘 쿡 장로
- 15 포스터: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 24 조셉이 가르친 것: 계시와 살아 있는 선지자
- 31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마태복음 5:14~16
- 32 로마에 가면 ... 이 로마인들의 모범을 따라라 제니퍼 매디
- 44 세대에서 세대로 아담 시 올슨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미스티를 위한 메시지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하늘 아버지, 정말인가요? 린다 크리스텐슨
- 친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조셉과 에머의 시련
- 친8 그랜트 회장의 모범 하이디 로즈
- 친1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가족 기도 시간
- 친11 색칠하기
- 친12 친구가 친구에게: 형과 강아지 키스 알 에드워즈 장로
- 친14 친구 사귀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오마의 비결

10 지식을 구함으로써 신앙을 강화함



표지

앞: 사진 삽화: 제리 간스,
뒤: 사진삽화: 스티브
번더슨; 책 사진촬영: 웨든
시 앤더슨

친구들 표지

삽화: 짐 매드슨

친14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오마의 비결

사용할지 목표를
세우라고 권유한다.

“**세대에서 세대로**” 44쪽: 다음
구절들을 종이 조각에 적고, 대접에
담는다. 니파이전서 8:12~18,
니파이전서 10:17, 니파이전서
15:6~11, 모사이아서 17:1~4,
모사이아서 18:1~3. 대접을 가족 중
한 명에게 전달한다. [대접을 받은
사람은 종이 조각 하나를 뽑고, 그
종이에 적혀 있는 경전 구절을 소리
내어 읽는다. 모두 한 번씩 해 보도록
한다. 이 경전 구절들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았는지 물어본다. 세대에서

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토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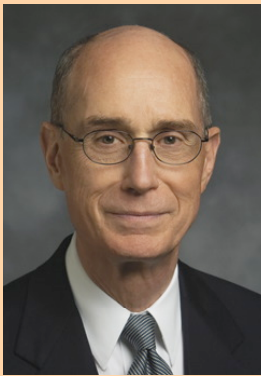
“**형과 강아지**” 친12 쪽: 모든
가족들에게 강아지 사진을 나누어 준다.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개가 충성을
다한 사람이 누구인지, 개는 왜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 말하고, 개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다. 가족에게 꾸준히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이번 주 동안 가족들이
친절한 일을 하면, 그 행동을 한 장소에
그 사람의 강아지 사진을 놓아 둔다.
이후의 가정의 밤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 상기시킨다.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기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친구들	선택의지, 15
가르침, 18, 21	성신, 2, 16
가정복음, 2	성전, 32
가족, 2, 25, 44, 친10, 친12, 친14	속죄, 2, 10
가족 역사, 26, 27, 28, 29	시련, 36, 친6
간증, 39, 44	영감, 16, 친2
개인 발전, 8	예수 그리스도, 2, 31
계시, 24	용기, 36
기도, 16, 친4, 친10, 친11	음악, 39
단합, 2	일기, 29
모범, 31	잠재력, 25
물문경, 10, 36, 44	조셉 스미스, 24, 친6
사랑, 2, 친12	지식, 10, 16
산상 수훈, 31	초등학교, 39, 42
상호부조회, 25	축복, 친4
선교 사업, 32, 42	칠판, 21
선지자, 10, 24, 친8	학습, 16, 21, 친8
선택, 10, 15	회개, 10

하나가 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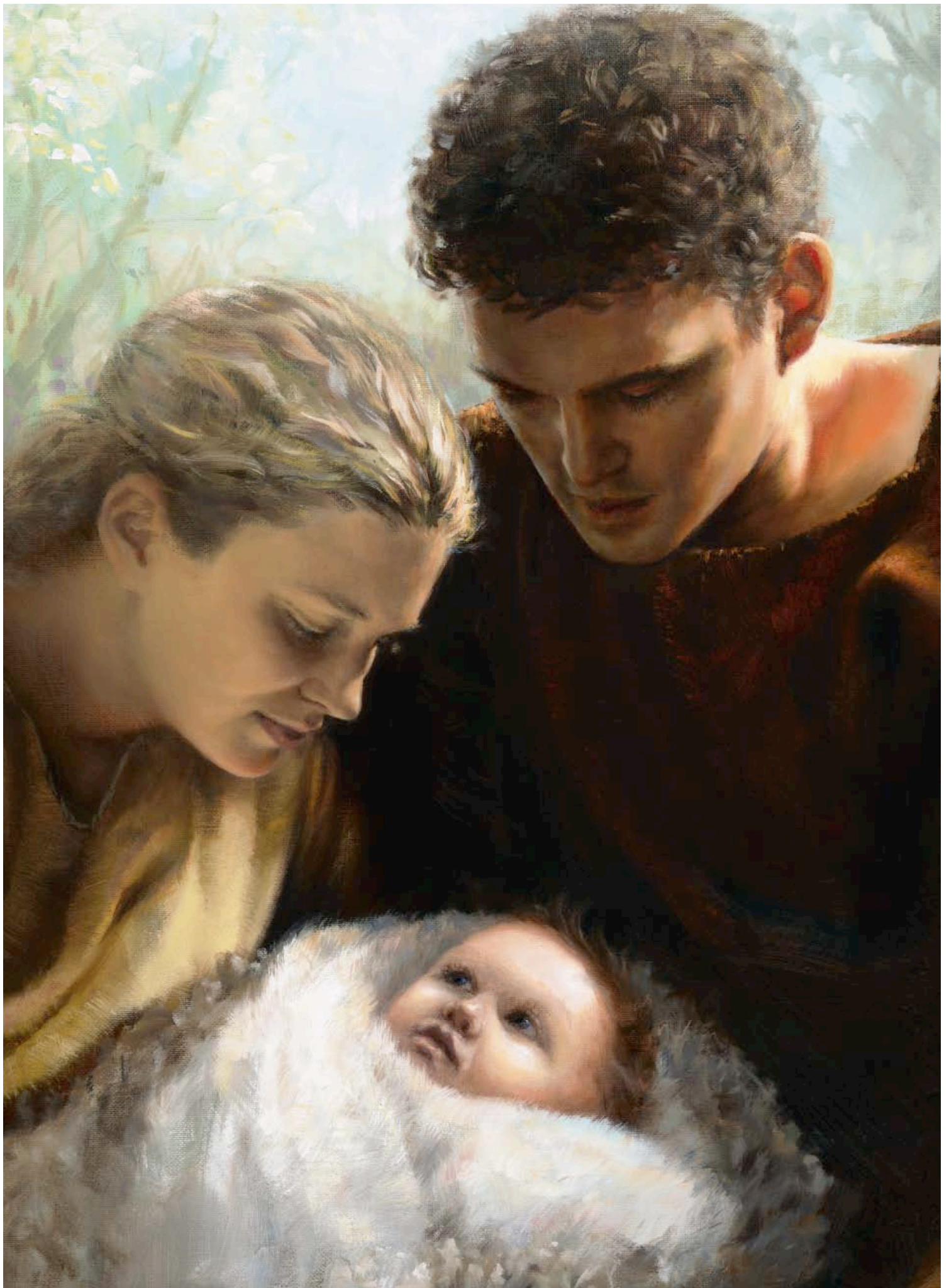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단합을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세에서 영원한 단합을 이룰 만큼 합당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속하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창조될 때, 결혼을 통해 단합하는 것은 희망 사항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세기 2:2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맺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에 있어서 그와 같은 연합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상 생활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필요성은 끝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죽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 때 최초의 결혼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에게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완전하고 의롭게 연합하여 가족으로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단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극은

일찍 다했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은 사탄이 유혹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교묘함과 증오와 교활함으로 목표를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세우신 목적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단합과 영원한 행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적인 사탄은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에만 가족의 성스럽고 기쁜 연합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떼어 내어 비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가족과] 분리되고 헤어지도록 인간의 마음 속에 불화의 씨앗을 심는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합과 분리가 무엇인지 느껴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 가족 안에서, 혹은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랑과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것보다 우선하는 것을 볼 때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분리되고 홀로 되는 것의 슬픔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지 지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단합을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세에서 영원한 단합을 이룰 만큼 합당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



성

찬 기도문은
올법에
순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식을
통해 단합의 은사를 받는
방법을 매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그러한 단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시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사도들과의 마지막 모임에서 기도를 통해 그것을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무거운 희생을 감당하시려던 참나였습니다. 자신이 성임했고, 교회를 인도할 열쇠를 맡길 사랑하는 사도들과 헤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온전한 아들이 온전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주와 그분의 종들을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일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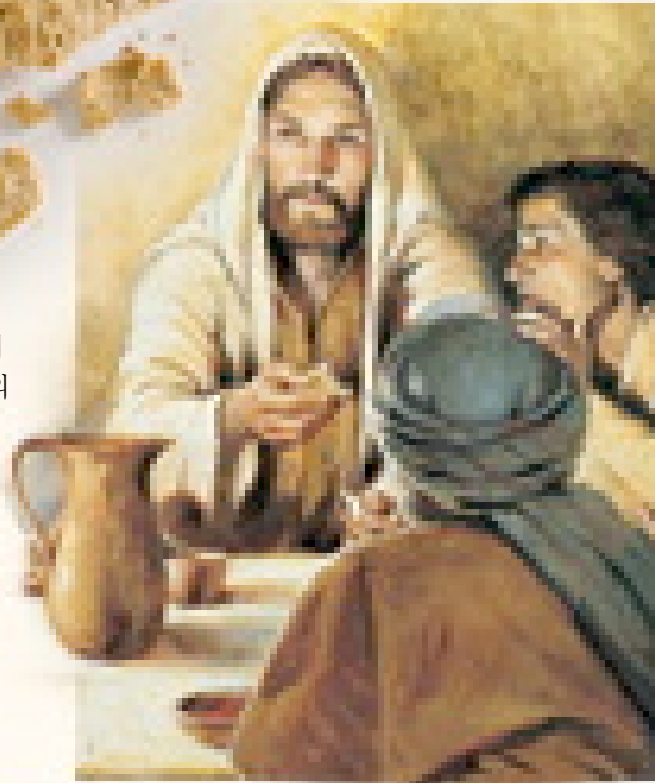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18~21)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느지를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분께서 권세를 부여한 종들이 베푸는 의식과 성약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과 성약들을 지키면서 그들의 성품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의 속죄가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화평을 얻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영원히 함께 거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현대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도와 선지자들의 성역은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고,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합할 가족, 곧 남편, 아내, 자녀, 조상들을 하나로 묶고 마침내 아담과 이브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의 다음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들을 칭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입니다”(요한복음 17:19) 성신은 거룩하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신을 우리의 동반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뿔기세텍 신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권의 열쇠는 지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의 권세를 통해 성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화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간증을 부어 주는데, 그것은 간증을 나누는 사람들을 결합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은 결코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3니파이 11:29 참조) 영은 결코 투쟁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해 주지 않습니다.¹ 성신에 주의를 기울이면 개인적인 평화와 다른 사람과 단합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하나로 묶습니다. 단합된 가족, 단합된 교회, 그리고 세상의 화평은 단합된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성신의 동반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찬 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식 모임에서 이 기도를 듣습니다. 이 성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침례 때 맺은 성약을 새로이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확인될 때, 성신을 받기 위해 맺었던 약속을 일깨워줍니다. 성찬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20:77)

그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먼저 사랑하는 한, 우리 안에 화평이 깰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국가가 속세의 물질로 성취감을 얻으려 한다면 결국은 분열될 것입니다.²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일하겠다는 이상을, 주님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이상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가능하게 한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게 됩니다. 간구할 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기억하게 됩니다. 용서와 화평의 느낌이 올 때 우리는 그분의 인내와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기억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 줍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할 때, 한 아이는 자신의 형제 자매가 그 날 치를 시험이나 어떤 일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간구했던 대로 축복을 받게 된 자녀는 아침에 받았던 사랑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이름의 주인이신 변호인의 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기 위해 모이는 때 순간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경전은 예나 지금이나 늘 선지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녀들이 경전의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할 것입니다.

셋째,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셨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님은(1871~1961) 한 연차 대회에서 단합을 호소하시며-여러 번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할지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쓸데 없고 불필요한 계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들로 경전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구별이나 차이도 없습니다.”³ 클라크 회장은 우리가 단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들리는 바와 같이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주의 권세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모사이아서 3:19 참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가족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 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권세를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겸손한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정 복음 교사, 또는 방문 교사로서 주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에 따라 그분을 대신하여 행합니다. 한 명의 성인과 십대의 후임 동반자는 그들이 방문하는 가족이 화합하고 그들 사이에 감정 대립과 거짓말, 험담, 욕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하늘 권능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 믿으며 가정들을 방문합니다. (교리와 성약 20:54 참조) 주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는다라는 신앙을 갖는 것은 주님의 종이 우리를 꾸짖거나 질책할 때에도 우리가 그들의 결점을 보지 않도록 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적인 결점보다는 그들의 훌륭한 의도를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덜 내고, 그들을 부르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단합의 장애물

계명 중에는 그것을 어겼을 때 단합을 깨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보인 반응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악담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좋은 면을 보아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서로에 대해 상냥하게 말해야 합니다.⁴

동시에 우리는 성스러운 것을 경시하는 태도로 말하는 자들과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분명 영을 거스려서 분쟁과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김볼 회장님(1895~1985) 병원의 이동식 침대에 누워 계셨을 때 한 간병인이 화를 내며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듣고 다음과 같이 요청하시며 다투지 않고 맞서는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욕하는 그분은 바로 저의 주님이십니다.”

“취 죽은 듯한 침묵이 있던 다음, 억제된 음성으로 그는

‘죄송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⁵ 영감받고 사랑이 가득 찬 꾸짖음은 단합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 꾸짖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합을 원한다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에 관해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악의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분노와 상처의 모든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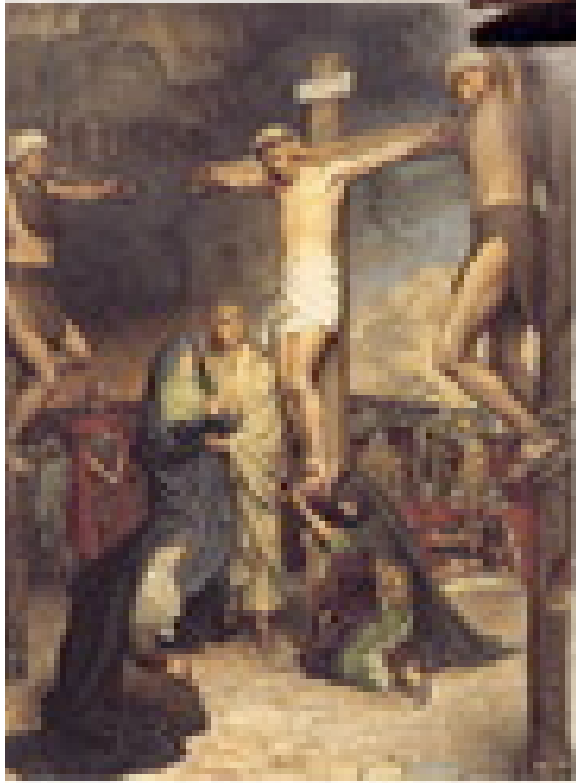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그것을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종이에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맺는 세 가지 약속을 적는다. 각 종이를 보여주며 그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2. 방문하기 전에 종이를 잘라 세 조각의 하트 모양을 만들고 변화, 동반자 관계, 신앙이라고 이름 붙인다. 단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며 가르침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변화”라고 쓰인 종이를 내려 놓는다. 아이어링 회장이 말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의 의미를 읽거나 설명하고 가족들에게 변화의 예를 들어 보라고 한다. 다른 두 조각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하트 퍼즐을 끝낸 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한다.

3. 이 메시지의 첫 두 문단을 가족들에게 읽어 주거나 읽게 한다.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줄의 실은 쉽게 끊을 수 있지만 서로 얽혀 있는 여러 줄의 실은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족이 단합되었을 때 더욱 강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고린도전서 13:4~5) 그리고 그는 우리가 스스로의 결점을 있고 남의 결점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린도전서 13:12)

성찬 기도문은 매주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식을 통해 단합의 은사를 받는 방법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항상 기억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고 단합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에 수반되는 두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첫째, 성신은 우리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로부터 자유로울 때에만 우리와 함께 머뭅니다. 부정확한 것을 선택하면 성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영은 오로지 주님을 세상보다 우위에 두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너희여, 깨끗할지어다”(제3니파이 20:41, 교리와 성약 38:42),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교리와 성약 59:5)는 말씀은 제안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이것은 영을 동반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며, 이 계명들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경고는 교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함께하여 온유하게 된 가정이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단합은 위대한 힘을 가져옵니다. 그 힘은 세상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인정이 칭찬을 불러오든, 또는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을 불러오든, 그것은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화의 근원이 되는 교만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축복들을 그분의 사랑의 표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봉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유사점을 활용하고, 서로와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보완하고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는 소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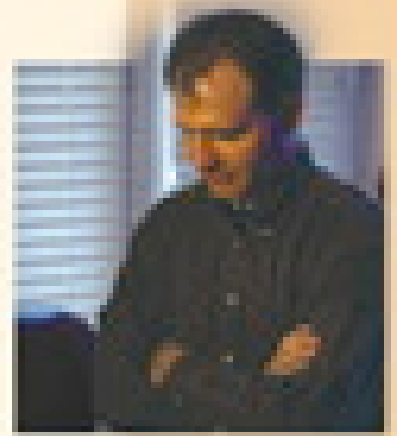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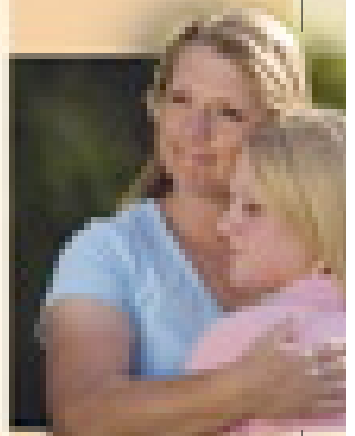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9)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기를 세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준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교리, 5판(1939년), 131쪽.
2. 해롤드 비리, *Stand Ye in Holy Places*(1979년), 97쪽.
3. 대회 보고, 1955년 4월, 10~11쪽.
4.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회 보고, 1967년 10월, 7~8쪽 참조.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벨기세텍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 2006년), 157쪽.

우 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악의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일의 책임자

조 빙햄

가나의 아사만케스 지방부 장크론 지부의 청년인 프린셀라 장쿠는 가나의 분주한 느사암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많은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혹은 신기하게 균형을 잡은 냄비를 머리에 인 채 빵을 팔기 때문에 빵 마을이라고 알려져있다. 아홉 살에 침례를 받은 프린셀라와 그녀의 쌍둥이 남동생 프린스, 그리고 그녀의 모든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다.

프린셀라는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활동들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지부에는 마을 어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애쓰는 인도주의 지원 선교사인 톰슨 자매가 있었다. 느사암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전혀 못했고, 톰슨 자매 역시 트와이 지역 현지어를 못했기 때문에, 톰슨 자매와 그녀의 학생들 간에는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웠다.

그때 바로 프린셀라가 나타났고, 그녀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데다가 트와이를 포함한 네 지역의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일의 책임자였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프린셀라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억한다. “제가 지식의 가치에 관한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영어 클래스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 속에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마을 어른들 앞에 서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았죠. 첫 2주 동안 그분들은 제가 자신들을 놀리러 온다고 느끼셨고, 가르치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지요.” 그 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십대 소녀 교사와 어린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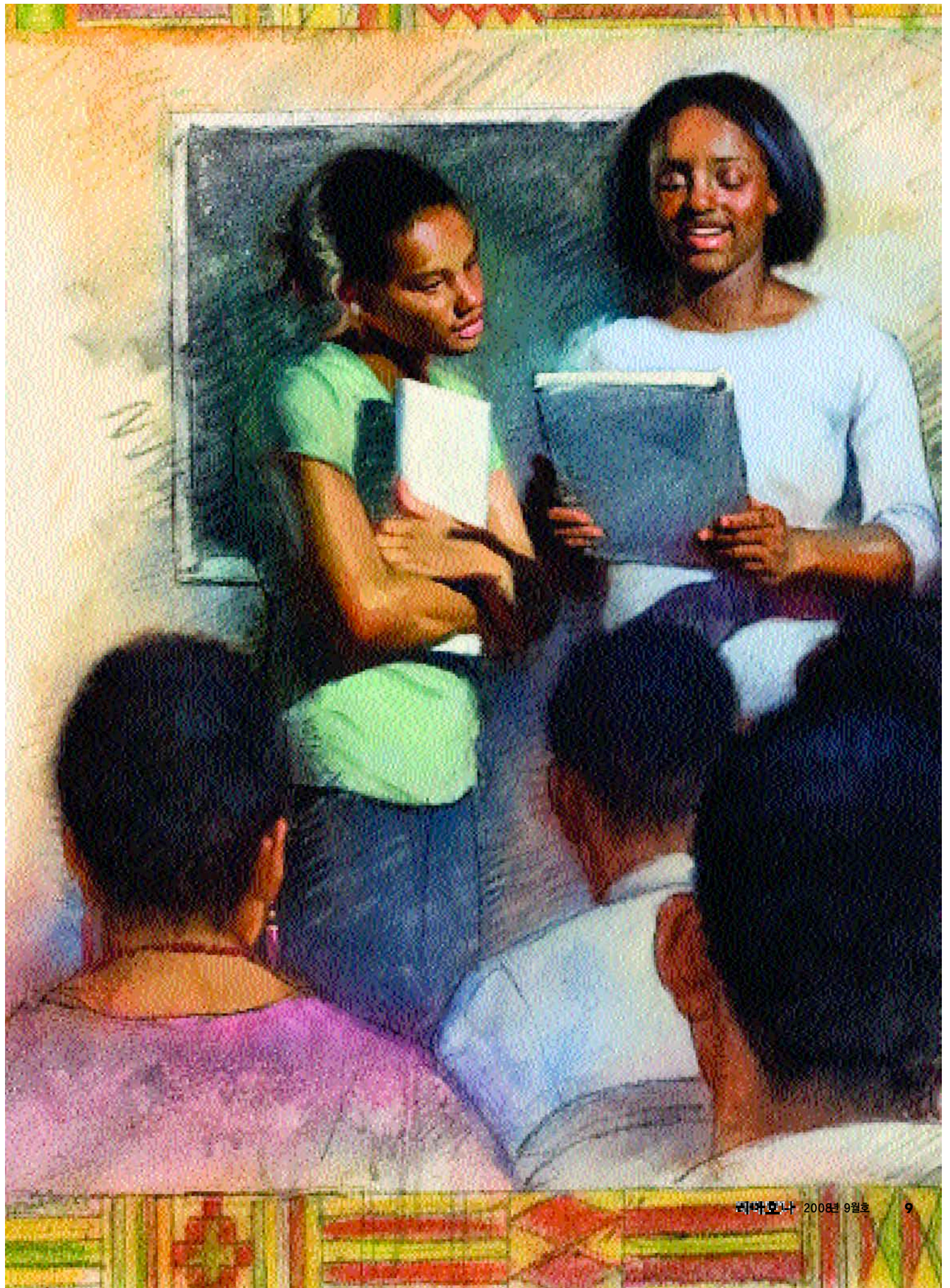
자신의 개인 발전 프로그램의 활동을 마친 프린셀라는 수업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다. “정말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프린셀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봉사하고 있다.

그 후 프린셀라는 청년 표창을 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청년 프로그램은 교회에 대한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고, 이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살아 계신 선지자이시고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의 교리와 원리들이 모두 참되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어요.”

비록 프린셀라가 더 이상 청년으로서 청년회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문으로서 청년회에 속해 있다. 그녀는 지부 청년 회장단 서기로 봉사하고 있다.

프린셀라가 세운 목표 중 하나는 21세가 될 때 선교 사업을 나가서 간증을 나누고 자신의 봉사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지식을 구함으로써 신앙을 강화함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지런히 지식을 구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 회 교리에서 신앙과 지식의 탐구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합니다. 제가 말하는 신앙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과 지식은 똑같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운동, 취미생활, 돈 버는 것, 또는 다른 것들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신앙이 자리잡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지식을 구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선택을 결정하는 인생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여러분의 미래와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니파이후서 2:11)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니파이후서 2:27)

이미 하늘에서부터 구원의 계획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종교 원리들이 악의적으로 공격받는다라는 사실이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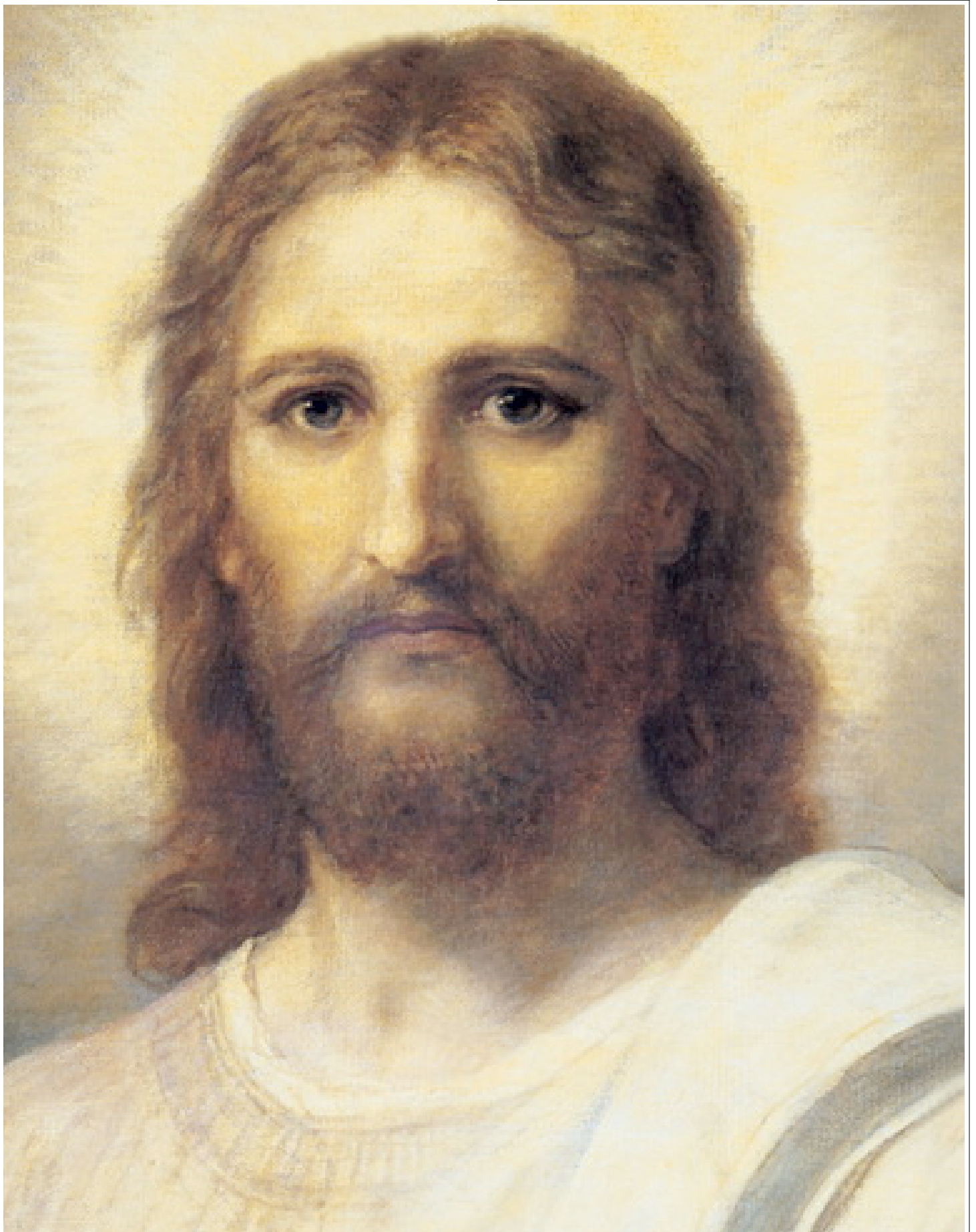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1910~2008)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삶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 학교에 대해 걱정합니다. 결혼에 대해 걱정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의 인도에 따라 그분의 길을 걷는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¹

2.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내릴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러한 간증을 얻는 데 물문경은 필수 요소입니다.

열다섯 살 때 저는 물문경과 조셉 스미스, 그리고 구주에 대한 간증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당시 제 형 조는 스무 살이었습니다. 한국



여 러분이 내리게 될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간증입니다. 물론 경은 그러한 간증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전쟁 중이었던 그때에는 각 와드마다 한 명의 청년만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 징집될 수 있게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해 초에 와드의 한 청년이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형의 생일은 9월이었기 때문에 형은 선교 사업을 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크 회장님은 형을 부르셨고, 한 와드가 할당된 선교사 정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세가 되어야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는데, 제 형은 의과 대학 입학 서류를 이제 막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교회 활동이 저조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형이 의과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계셨으며, 스테이크 회장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형에게 선교 사업을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과 대학에 진학하면 더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가족에게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형과 저는 그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형이 저보다 다섯 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는 대부분 형이 이끌었습니다. 함께 의논한 끝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사람이지만 신성한 분이 아니고, 조셉 스미스가 위대한 교사였지만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혹은 몰몬경이 훌륭한 권고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아버지가 옳고, 따라서 의과 대학에 가는 것이 더 낫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한 분이시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이며,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부름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날 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확신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영이 제 영혼에 구주와 몰몬경의 참됨,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해 주었습니다. 형도 같은 증거를 받았으며, 그는 선교 사업을 가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형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의과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스무 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아버지는 선교 사업을 나가는 제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3. 부지런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지식을 구하십시오.

신앙과 지식을 추구할 때 우리는 겸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계획이여! 오 사람들의 헛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이여! 그들이 학식을 얻으며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아는 듯 여겨 하나님의 권고를 옆으로 제쳐놓음이라 ...”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으니라”(니파이후서 9:28~29)

지식에 대해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그 중 상당 수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 형인 조는 의학 박사입니다. 이제 70대가 된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의 자격 갱신 시험을 여섯 번이나 치렀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제게 시험문제는 지난 35년 동안 출제된 것들과 다르지 않은데, 해답은 계속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35년 전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다지선다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화성 궤양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그 당시 해답은 스트레스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위 조직에 기생하여 성장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질문은 변하지 않았지만 많은 해답들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여러 다른 분야의 지식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식을 쌓는 여러분의 노력을 그만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지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사는 특별한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중요했으며, 오늘날 우리는 새롭고도 흥미로운 주요 기술의 발단에 서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기술 혁신은 교회와 인류에 커다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거나 새로운 것이거나 지식은 중요합니다.

4.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핑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상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곳에서 표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느 것도 성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

“저는 지금 시대의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심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제멋대로인 그분의 아들과 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독특하고 긍정적인 지도력을 가진 핑클리 회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악의 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 그것이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²

선지자들은 단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미래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갖게 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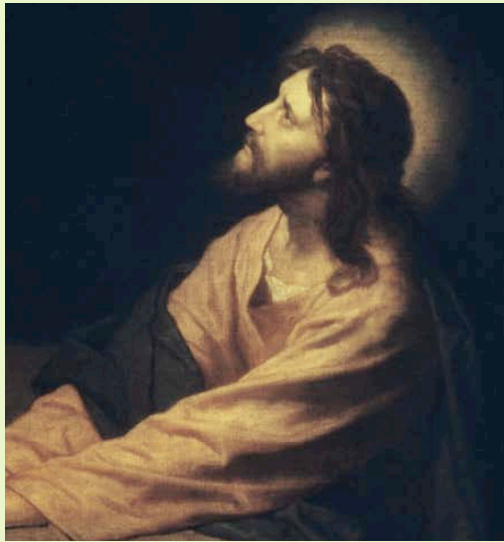
나쁜 선택에 대한
합리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만,
회개는 그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속죄로 인해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권고를 줍니다.

선지자들을 따르면,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5. 여러분의 삶에서 속죄가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생활하십시오.**

나쁜 선택에 대한 합리화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지만, 회개는 그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속죄로 인해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속죄가 없다면 공의의
영원한 법칙은 형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앨마서



42:14 참조) 속죄로 인해,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앨마서 42:15 참조)

제가 처음 속죄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려 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법과대학을 마친 후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셔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을 뵙고
싶다면 유타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6세셨던 할아버지는 무척 편찮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무척 기뻐하셨고 그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염려하셨습니다.

1. 그분은 열 명의 자녀들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가 합당하여
성전에 갈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2. 제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제 증조
할아버지는 마틴 손수레 부대의 사람들이
스위트워터 강을 건너도록 도운 청년들 중 한
분이셨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세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인생을 가치있게 살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3.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구주를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니파이후서 9장 41절을
인용하시면서 구주가 바로 “문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구주의 자비를
얻기에 합당하도록 충분히 회개했기를 바란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오직
속죄를 통해서만 자비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할아버지께서
품으셨던 구주에 대한 큰 사랑과 속죄에 대한
감사를 기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주의 신성과 속죄의
실재성에 대해 증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에
놓인 중요한 선택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200년 3월 14일에 있었던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영적
모임에서 발췌.

주

1. “청소년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야호나, 200년 4월호, 30쪽.
2.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년 1월 10일, 20쪽.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올바른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모사이사서 5:10 참조)



부지런한 학습의 힘

제이 이 젠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배움을 위한 많은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의 다음 권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부지런히” 배우지어다. 배우지 아니하는 자는 “합당한 자로 해아림을 받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107:99~100)

경전에는 배우는 것에 대해 144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가 ...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브리서 5:8)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앨마서 37:35)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몰몬서 9:31)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교리와 성약 19:23)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연구하며 배우며 모든 양서와 여러 언어와 방언과 백성들과 친숙하게 되라.”(교리와 성약 90:15)

“지혜를 배우고자 또 진리를 찾고자 부지런히 [노력하라.]”(교리와 성약 97:1)

이러한 신성한 권고로 주어진 계명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복음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신중한 추론과 연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두 부분, 즉 육신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는 반드시 영의 권능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영을 통해 배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의 육신에 대해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 모든 것들을 ... 마치 우리가 전혀 육신을 갖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영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구원할 계시는 우리의 육신도 구원할 것입니다.”¹

교리와 성약을 보면, 주님은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그분의 신성한 방침을 한층 더 강조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대로 받는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음은 어쩐이냐?”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0:21~22)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해하고 교화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따름으로써 받는 축복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해하다*라는 동사는 들은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복음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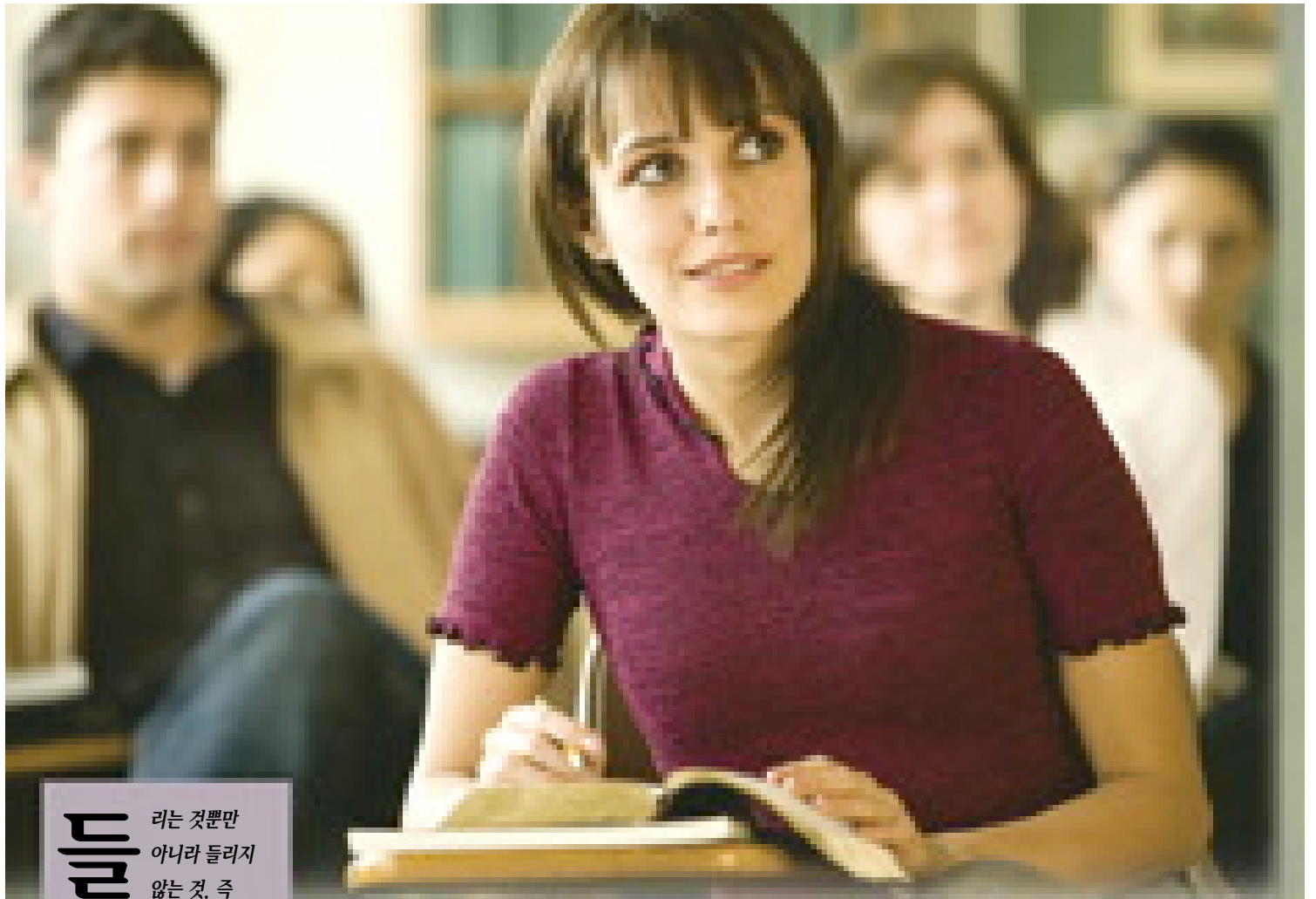
신중한 추론과 연구,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화되더라는 것은 성신을 통해 전해졌다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 메시지는 각자의 필요 사항에 따라 성신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²

니파이후서 33장 1절에 기록된 니파이의 말씀은 영을 통해 배우는 또 다른 면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함이라.” 이것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구주를 초대할 때에만 실현됩니다.

구주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20 참조) 성신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니파이후서 33:1~2 참조) 우리는 단지 우리의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문을 열면 됩니다.



들 리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 즉 성신에게서 오는 무언의 느낌과 자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부지런한 학습

가르침과 배움을 주제로 열린 2007년 2월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부지런히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고하셨습니다. 배움에 대해 팩커 회장님께 배운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팩커 회장님은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배우고 싶은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의지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에 불쾌해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지시나 교정에 대해 불쾌해한다면, 우리는 영을 거스르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신과 교사를 위해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교사가 약간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휘가 어눌하고 표현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과 교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교사님은 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지금 짊어진 무거운 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시지만, 그가 제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팩커 회장님은 특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격려하십니다. “저는 늘 연로하신 분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이 다른 사도들만큼 빨리 걷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다리면서 그분을 위해 문을 열어드리고 맨 뒤에서 함께 건물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루는 사도들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차즈 형제님을 돌보아 드리시다니 참 친절하십니다.’ 이 말에 저는 속으로 ‘사실 그렇게 하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지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저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을 기억하시며, 그분에 관한 말씀을 곧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³

나아가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 즉 성신에게서 오는 무언의 느낌과 자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교사가 말하지 않은 것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늘 [성신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신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응답을 속삭여 줄 것입니다.

넷째, 귀를 기울이면서 배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은 것을 기록하고 넓게 적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정말 그것을 배웠다는 확신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배운 것을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것을 정말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정리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만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배우기 위한 준비

교실에서 하는 일에 덧붙여서, 우리는 수업을 듣기 전에도 부지런히 배우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십시오. ... 그리고 정신이 맑은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가르쳐야 할 개념들이 떠오르는 때입니다.”⁴ 저는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기 위해 일찍 일어날 때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모임, 특히 교회 모임 중 가장 영적인 모임에 속하는 성찬식에 늦지 마십시오. 경건한 태도로 오십시오.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모임 시작 전에 흐르는] 전주 음악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함께 이야기할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배우는

자로 와서 계시를 받을 수 있게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교사나 연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와 상관없이 배움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수 년 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1895~1983)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을 지니기만 한다면 간증 모임은 한 달 중 [교회에서] 갖는 모임 중 가장 좋은 모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 모임에서 지루함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어나 간증을 하고 그 모임이 한 달 중 가장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서 문법적 오류를 세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비웃는다면, 그 모임은 여러분에게 지루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간증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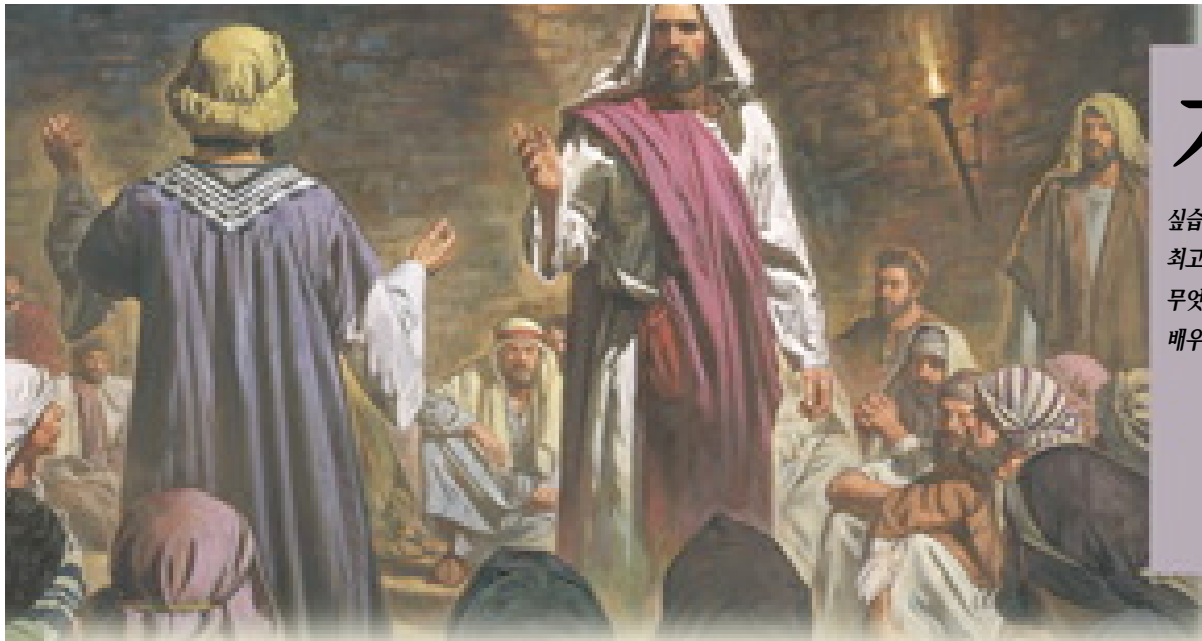
그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

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기 위해
일찍 일어날 때 계시가 올

것입니다.





저

는 최고의
교사이신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최고의 교사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선
배우는 자가 되셨습니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패커 회장님은 인터뷰에서 이 점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기를 가지고 배우십시오. 배움을 위한 많은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수 년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 보좌로 봉사하셨던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님은 배우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행크스 장로님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저명한 박물학자였던 루이스 아가시스 박사에 대한 한 가지 일화를 나누셨습니다. 한 독신 여성이 박사를 찾아와 자신에게는 배울 기회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가시스 박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회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고 그가 질문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양파를 썰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흥미롭지만 단순한 그 일을 할 때 어디에 앉아서 하십니까?’”

“부엌 계단 맨 아래에 앉아서 합니다.’”

“밭은 어디에 두시나요?”

“유약 벽돌 위예요.”

“유약 벽돌이란 무엇인가요?”

“모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15년 되었네요.’”

“부인,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유약 벽돌의 특성에 관해 제게 편지로 알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가시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박사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벽돌과 타일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은 후 아가시스 박사에게 유약 벽돌에 대한 36쪽의 글을 보냈습니다.

행크스 장로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시스 박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보내 주신 글은 이 주제에 대해 제가 본 글들 중에서 최고입니다. 별표로 표시된 단어 세 개만 바꾸어 주신다면 이 글을 출판하고 그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25달러가 동봉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 밑단에는 연필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벽돌 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그녀는 한 단어로 ‘개미’라고 답했습니다. 그에게서 다시 돌아온 답장에는 ‘개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폭넓은 독서와 방대한 양의 작업, 그리고 깊은 연구 끝에 그 독신 여성은 그 주제에 대해 360쪽에 달하는 글을 썼습니다. 박사는 그것을 책으로 출판했고 그녀에게 출판 수익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꿈에 그리던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⁶

평범한 데 만족하지 않고 부지런히 배우려 하는 것에는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로서 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훨씬 더 훌륭한 교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교사이신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최고의 교사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선 배우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으로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 2007년), 474~47쪽.*
2. “To Understand and Live Truth”(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와의 저녁, 2005년 2월 4일), <http://lds.org/library/display/0,4945,5344-1-2783-8,00.htm>.
3.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2쪽.
4.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2쪽.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블(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 2008년), 75쪽.*
6. “계속해서 배움,”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24~25쪽.

칠판: 교육을 위한 도구

칠판은 여러분이 가르치려는 공과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말이다.

교 사로서 저는 늘 학생들의 공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저는 옆 반 칠판을 들여다 보기 전까지는 제가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옆 반의 그 칠판 중앙에는 교리에 대한 간단한 문장과 그림, 두 가지 질문, 그리고 학생들이 그 질문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과 지시 사항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반원들이 들어오면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리 경전을 펼쳐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리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업 시작 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교사는 일반적으로 낭비되어 버리는 수업 전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개회 기도를 하기 위해 그들을 모았지만, 공과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주님의 영이 이미 여러 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경전과 함께 훌륭한 경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지침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에 나오는 지침(167, 182쪽 참조)과 더불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한다면 복음을 가르칠 때 칠판이나 화이트 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단순하게 한다.** 2007년 2월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교사들에게, 시각 자료는 [가르침을] 돕는 자료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공과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각 자료는] 요리할 때 맛을 내고, 또는 맛을 진하게 하거나 입맛을 당기게 하고,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양념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지도나 그림, 또는 비디오 클립이나 칠판에 적는 요점 등은 가끔 그저 좋은 공과와 정말 훌륭한 공과 사이의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¹

● **준비한다.** 공과를 가르치기 전에 칠판에 무엇을 배치할지 종이에 정리하십시오.

● **알아보기 쉬운 필체로 적는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36123 320)에는 교사들에게 전하는 다음과 같은 권고가 있습니다. “내용이 알맞은 크기로 읽기 쉽게 잘 배열되었는지 확인하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적는다.”² 반원 한 명에게 도움을 부탁할 수도

롭 존스
교회 교과 과정 개발

복음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오래된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칠판입니다.



마태복음
 5:14~16

칠판 판에 간단한
 그림을 그린
 후 그림들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경전을 읽도록
 권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무엇을 적을 것인가

다음은 반원들이 좀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칠판이나 화이트보드를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반원들을 위한 메시지를 적는다.

●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는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인사를 적습니다.

● 학교 또는 교회에서 달성한 업적에 대해 학생들을 칭찬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상을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 정원회 회장 또는 반장에게 다가오는 활동에 대한 광고를 적게 합니다.

다음 사항을 칠판에 적음으로써 흥미를 돋우고

공과를 향상시킨다.

● **공과 제목:** 공과 제목 또는 공과를 대표하는 문구를 적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수업 전에 공과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 **질문:** 공과를 하는 동안 사용할 질문 한 가지를 칠판에 적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이 답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림:** 많은 학생들은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 배웁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학생에게 사람, 물건, 또는 사건을 칠판에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촛대에 꽂힌 초, 말(바구니), 산을 그린 후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학생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16절을 읽어 보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 **개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과를 부분 별로 나누어 정리하기 위해 칠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시아야서 11장 1~5절에서 사악한 노아 왕과 그의 제사, 그리고 그가 니파이 백성들에게 지운 짐에 대해 가르친다면 칠판에 “노아”, “제사”, 그리고 “백성들”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 그룹의 특성을 찾는 동안 여러분 또는 학생 한 명이 각 제목 밑에 특성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적음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증대시킨다.

● **학생들의 생각:** 학생들에게 칠판 위에 성전이 왜 그들에게 중요한가와 같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짧은 문구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게 합니다.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칠판을 활용하십시오

저는 칠판을 능가하는 교수 도구란 없으며, 그와 동등한 수준의 도구도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칠판은 사용하기 간단하며, 이 세상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귀로 들을 수 있게 공과를 가르치는 동안 학생들의 눈을 집중시키기 위해 칠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동안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만큼만 칠판에 배치하도록 하되, 시각 자료 자체가 주의를 분산시킬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Teach Ye Diligently* (197년), 266쪽.

● **학생 설문 조사:** 교회 표준에 대해 가르친다면 세 개의 칸에 “지혜의 말씀”, “정직”, “도덕성”이라는 단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반원들은 사람들이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표준이라고 생각되는 표준 밑에 체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느낌을 나누도록 권유합니다.

● **학생들의 대답:**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을 때 칠판을 사용합니다. 성신에 대한 공과를 가르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학생들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신을 통해 어떠한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한 효과적인 교육

물론, 이러한 것들은 칠판이나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여 더 좋은 학습을 만드는 많은 방법 중 몇 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방법들을 떠올려서 여러분의 수업과 주제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

1.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배움”, *리야호나*, 2007년 6월호, 71쪽.
2. *교사, 가장 중요한 무렵*(199년), 182쪽.



계시와 살아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에서 계시가 갖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조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상에 계시하도록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가 이 역할에 부합하도록 성장하는 동안 조셉은 교회에서 계시가 어떤 질서 아래 전해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았다. 다음은 계시와 살아 있는 선지자의 역할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중 일부이다.

계시는 필수적이다

“계시의 교리는 계시가 없는 교리를 훨씬 능가합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계시된 한 가지 진리가 현존하는 모든 종파의 신조보다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계시 없이 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계시 없이 성역을 베푸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간증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예언의 영입니다.”[요한계시록 19:10 참조]

계시의 질서

“너는 너의 우두머리가 되며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자에게 명령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 대신 다른 자를 그들에게 정해 줄 때까지 비밀의 열쇠와 인봉된 계시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28:6~7)

“제일회장단의 회장들 또는 [제일]회장단이 교회를 관리하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대한 계시는 제일회장단을 통해 옵니다. 이것이 하늘의 질서이며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특권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모든 역원에게는 교회에서 맡은 자신의 특별한 부름과 의무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르라

“우리 중에는 지나치게 똑똑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르침을 받기 힘든 남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무지한 가운데 죽을 것이며, 부활할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 200 편)에서, 195, 197, 202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잠재력에 대해 가르쳐준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사항에
맞는 성구와 인용문을
가르친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나의 영원한 잠재력이란 무엇인가?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성의 가장 귀중한 보상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딸로서, 자신의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설 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실한 성도들에게 왕위와
왕국, 통치권과 영광, 불멸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2:7; 교리와
성약 75:5; 128:12, 23; 132:19
참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여성들에게 있는
잠재력입니다. 영원하고 신성한 그
잠재력은 그들을 높이 들어올려
줍니다.” (“여성-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25쪽)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모든
소녀와 여성은 어머니라는 영원한 역할에
관한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여성의 역할은 지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여기에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지상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은 다가올

세상에서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보물 있는
곳에는 [그녀의] 마음도 있[기] (마태복음
6:21) 때문입니다. 모든 소녀와 여성은
모성을 발전시킴으로써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신성하고 영원한 사명을
준비합니다.” (“모성”,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6쪽)

나의 영원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은 우리의 발전과 잠재력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도를 주시므로써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가능성을
잘 아시는 그분은 그분의 지침서, 즉
거룩한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신성한
권고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God’s Love
for His Children,” 엔사인, 1988년
5월호, 59쪽)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사는
데 필요한 학습 경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통해
그분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신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변화된 성품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Education
for Real Life,” 엔사인, 2002년
10월호, 16쪽)

존 테일러 회장(1808~1887):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세상에서 왕국과
주권과 권능을 얻기 위해 자신과 자손과
조상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 우리와
그들은 지상에서의 창조의 목적을 다한
후에 영원한 세상에 존재하는 예지와
교제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며, 우리가
떠나온 아버지의 면전에 다시
받아들여지고, 계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원리 또는 진리에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온
것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이며 …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 우리가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 성약을 맺는 것,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의식을 집행하는 것도 그러한
목적에 위해서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 2001년, 8쪽)

교리와 성약 78편 18절: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왕국은
너희의 것이요, 왕국의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한 부모 너희 것이니라.” ■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카를로스 에이 델 룽고

1963년, 아르헨티나에서 칩레를 받은 나는 이듬해에 지부 서기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어느 날 서기실에서 나는 여분의 가족 기록서와 가계도 양식을 발견했다. 비록 정식으로 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그 양식들을 작성해 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나의 친가와 외가 선조들의 이름과 [기록에 필요한] 날짜들을 4대까지 기억하셨다. 어머니는 5대째 어른들 중 일부와 6대 어른 한 분의 존함까지도 기억해내셨다.

나는 더 깊이 조사해 보고자 하는 열의를 갖게 되었으며, 어머니가 주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 역사 사업의 목적을 깨닫게 된 나는 즉시 사랑하는 선조들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하기 시작했다.

나의 [가족 역사 연구는] 외가 쪽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친가 쪽으로는 어려움을 겪었다. 25년 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조부님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분들의 결혼 증명서에 의하면 출생지는 이탈리아의 우디네라는 곳이었다. 그 마을과 주변 마을에 서른

나는 이탈리아의 우디네 마을과 주변 마을에 서른 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 보았지만 내가 찾는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나는 다시 한 번 편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신부님께 나의 친조부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여쭙보았다. 신부님은 내게 시청에 문의해 보라고 권하셨고, 나는 다시 편지를 썼다. 얼마 후 조부모님과 증조부모님, 그리고 고조부모님과 그 밖의 여러 친척들의 이름과 중요한

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 보았지만 내가 찾는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1988년, 로사리오에 가족 역사 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나는 사서로 부름을 받았다. 그 방대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니, 마치 하늘나라에 손이 닿은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수많은 시간 동안 자료를 조사하면서 여러 도시에 마이크로필름 기록을 주문했다. 나는 국제 계보 색인(IGI)을 통해 조부와 증조부의 이름을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그분들이 태어난 이탈리아의 마을에 편지를 써서 그분들의 출생 증명서를 요청했다. 해당 교구의 신부님이 내게 출생 증명서를 보내 주셨는데, 두 사람은 모두 나의 혈육이

날짜들이 적혀 있는 한 장의 종이를 받았다. 그 때 나는 뿔 듯이 기뻐했다. 이 문서를 통해, 나는 할아버지가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신 후에 개명하셨고, 그분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그토록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다시 시청에 서한을 보냈다. 내가 받은 문서 바로 앞 문서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시청에서 그 문서도 보내 주었는데, 그곳에 27명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분들이 모두 나의 선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에 대한 성전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 나는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나의 노력이 큰 보상을 받았다고 느낀다. 때때로 좌절감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가족 역사 사업을 인도해 주셨음을 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혹은 복천년 동안에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면 그분께서는 길을 마련하실 것이다. ■

가족 역사에 관한 흥미를 갖게 되었고 내 마음이 조상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거의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인 1981년 4월의 어느 봄날,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나는 CMY란 약자가 새겨진 반지를 발견했지만 아버지가 그 반지를 끼고 계신 모습은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었다. 아마도 젊은 시절에 캐나다 해군 소속 지뢰 탐색반이셨던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끼셨던 반지인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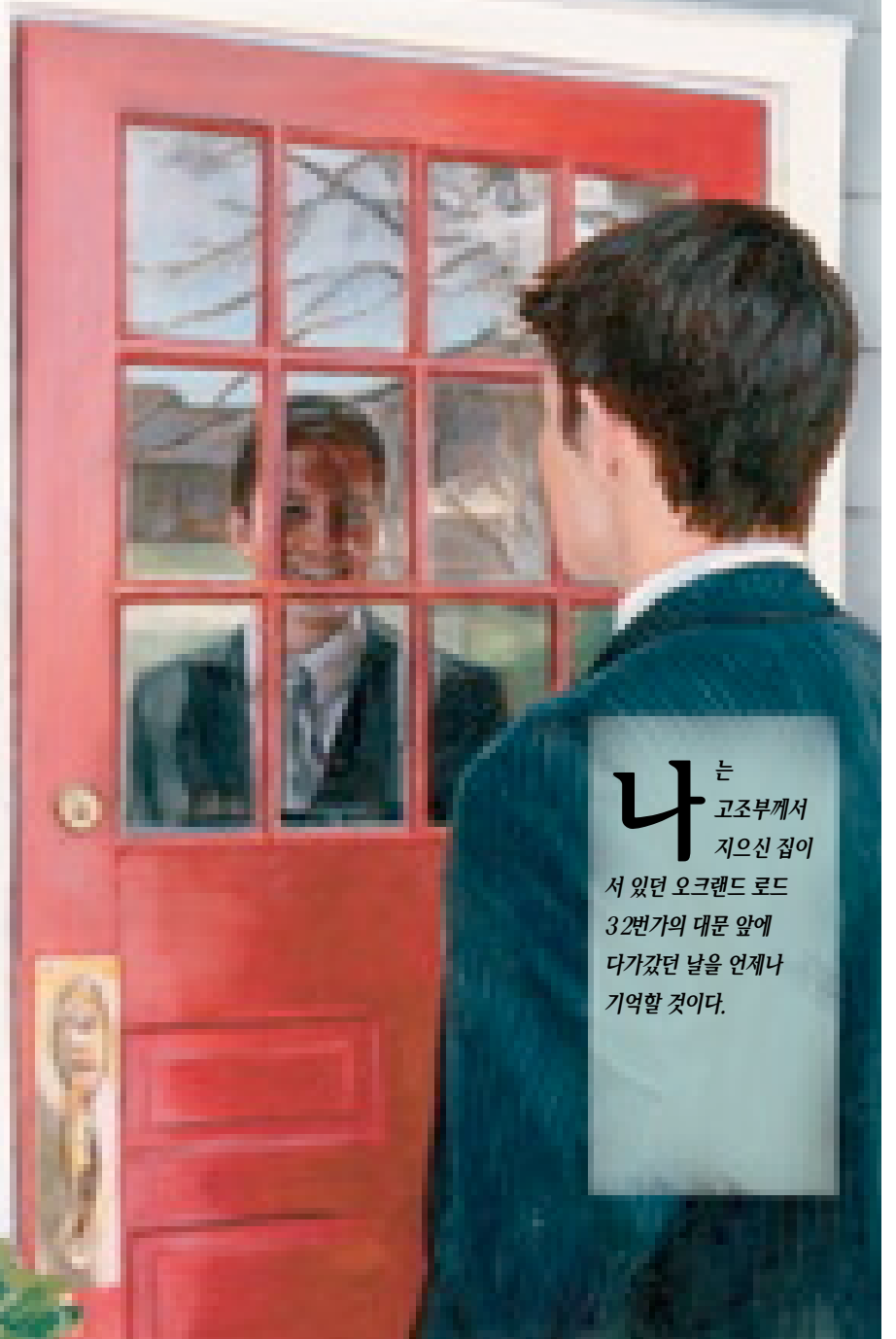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나의 한 장짜리 가계도에 있는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 역사에 관한] 자료 조사는 먼 친척들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었다. 외할아버지의 처제셨던 베티

가족 역사의 추억

스티븐 시 영

19 79년 여름, 고향인 캐나다 온타리오 주 런던 시에 있는 워드 회원들의 뒷마당 헛간에서 어머니의 책들과 종이 문지름 발견했을 때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곰팡이가 스 골판지 상자들 속에서 진질 만한 물건들을 주워 모으던 중, 나는 반쯤 작성하다 만 우리 가족의 가계도와 가족 기록서, 그리고 그 밖의 몇몇 조사 자료들을 발견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은 내가 열한 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직접 쓰신 것으로 보이는 네 페이지짜리 개인 역사 기록이었다. 손으로 쓰여진 이 기록은 1930년대 영국에서의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어머니의 생활을 말해주었다. 이 기록을 찾게 되면서 나는



나는
고조부께서
지으신 집이
서 있던 오클랜드 로드
32번가의 대문 앞에
다가갔던 날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할머니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영국 켄트 지방의 벡슬리히스에 있는 우리 가문 소유의 집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다. 나는 늘 외가 식구들을 방문하고 그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미혼의 대학생이었던 내게는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소액의 유산으로 나는 대서양 너머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베티 할머니를 처음으로 만나러 가던 날, 나는 몹시 떨렸다. 선대 어른들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나의 소망을 그분이 이해해 주실까? 나는 타고 있던 이층 버스 차창에 비친, 이제는 내 오른손에 끼어 있는 아버지의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 반지는 마치 나를 응원해 주는 아버지의 손이 내 무릎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내게 위안이 되었다.

다행히도 베티 할머니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 관한 유용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려 주셨다. 나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 집을 외조부께서 지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날 밤 나는 외할아버지께서 어린 시절에 주무시던 침실에서 잠을 잤다. 한 번도 외할아버지를 뵈지 않은 나로서는 할머니가 보여 주신 사진들을 보며 내가 그분을 놀라울 정도로 속 빼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이며 편지들, 그리고 1830년을 시작으로 2대에 걸친 나의 조상들의 정확한 이름, 출생일, 출생지가 적혀 있는 가정용 성경을 흔쾌히 내어 주셨다.

영국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선조들이 살던 고택을 향해 떨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떼었던, 그 비 내리던 9월의 오후를 뒤로 한 지 어느덧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이후로

나는 먼 친척들을 통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나의 선조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했으며, 그분들을 위한 성전 의식을 베풀 수 있었다.

나는 오크랜드 로드 32번가 앞에 다가서서 바라보았던 현관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웬지 낯설지 않던 그 얼굴은 고향에 돌아온 나를 반겨주시는 외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핀란드에서 찾은 보물

주디스 앤 로루넨 맥닐

로루넨 가문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나와 여동생은 가슴 속에 공허함을 느꼈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들이 1901년에 핀란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다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나는 남편 찰리와 여동생 제니스, 사촌 샌디와 함께 선조들을 찾기 위한 여행길에 올랐다.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샌디는 1605년에 지어진 로루넨 가문 소유의 저택에 관한 두 쪽짜리 보고서를 발견했다. 우리 가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569년 코하요기 마을에서의 것이었다.

핀란드에 도착한 우리는 승용차를 빌려 아침 일찍 코하요기로 떠났다. 마을을 찾아 헤매다 포기할 무렵, 남편이 작은 공항을 발견했다. 우리는 길을 묻기 위해 그곳으로 차를 몰았다. 사촌 샌디가

한 젊은이에게 우리의 보고서를 보여 주자, 그는 친절하게도 우리를 마을 도서관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코하요기는 숲속으로 난 도로변에 숨어 있는 곳이었다. 아마 도움 없이는 그곳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여행을 인도해 주시는 것만 같았다.

도서관에서 한 젊은 여자가 우리에게 루티고 교회와 공동묘지를 표시한 지도를 주었다. 교회는 찾기 쉬웠다. 목사님과 몇몇 서기들의 도움, 그리고 두 시간의 탐문 끝에 우리는 한 서기를 통해 로루넨 가문의 친척들에게 미국에서 찾아 온 방문객이 있다고 연락을 취했다. 친척들은 그 즉시 1,5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족 계보 자료를 가지고 찾아왔다.

우리는 교회의 장부계원에게 통역을 부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공동묘지를 거닐었다. 이날은 샌디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묘 앞에 선 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그분의 바이올린도 직접 만져보았다.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던 공허함이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핀란드에 사는 우리의 사촌들은 두 쪽짜리 보고서 속 사진으로만 보았던 우리 가문의 저택으로 우리를 태워다 주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 한 때 지평선 너머까지 이르는 드넓은 땅을 소유했었다고 말해 주었다. 가족 소유의 임야에 있는 집은 거대했는데, 로루넨 가문이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1550년부터였다. 러시아 군대가 코하요기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이 저택을 임시 군 사령부로 사용했다. 그들은 교회와 더불어 그 지역의 다른 모든 집들을 불살라 버렸다. 우리 가족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었다. 러시아군이 떠나간 후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방문한 새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앞장서셨다. 이윽고 저택 주변의 토지는 분할되어 팔려나갔다.

나는 제니스, 샌디아와 함께 2005년에 다시 코하요기를 찾아 새로 알게 된 우리의 사촌들과 재회했으며,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 2006년, 우리는 미국에서 첫 번째 로루넨 가족 모임을

개최했으며, 핀란드에서 온 열다섯 명의 사촌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여든아홉 명의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조부모님들의 삶을 추억하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유서 깊고 흥미진진한 가족 역사를 발견하여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었다. 가족 역사 사업은 참으로 주님의 사업이다. ■

어머니의 일기장

에드나 에프 찬들러

나는 5년 가까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어머니가 나를 보살펴 주셨듯이 사랑과 감사로 그분을 보살펴 드릴 수 있어서 기뻐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미소와 익살스러운 재담이 그리웠다.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며 느끼셨던 기쁨과 즐거움을 어머니가 다시 느끼실 수 있기를 깊이 소망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예전에 어머니는 길가에 핀 꽃이며 전선 위의 새들, 혹은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감자를 깎고, 콩깍지를 까며, 혹은 책을 읽으며 보냈던 시절이 그리웠다. 나는 그분께 어렸을 적 이야기도 해드리고 형제들 이야기나 손주들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었다. 어머니는 가족들, 특히 손주들이 방문하는 것을 몹시 반기셨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치매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어머니는 나를 그저 당신을 보살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만 아실 뿐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어머니의 증세가 유난히도 심하던 어느 날이었다. 내가 말뱃이 되어 드리려고 하자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내 얼굴을 뻘히 쳐다보기만 하시고 도와드리려고 할 때마다 못미더운 듯한 눈빛을 보이셨다. 나는 지치고 실망한 채 소파에 앉아

우리는 이름답게 가꾸어진 공동묘지를 거닐었으며 나의 사촌 동생은 처음으로 그녀의 할아버지의 묘 앞에 설 기회를 가졌다.

상념에 잠겼다.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 드리고 혹시라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라고 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나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지만 나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고 잊혀진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어머니는 가족들이 놀러왔을 때 느꼈던 기쁨과 떠나갈 때 느꼈던 슬픔에 대해 일기장에 자주 적어 놓으셨다. 또한 아버지가 병을 얻고 오랜 세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어머니를 신아홉의 미망인으로 남겨 두고 떠나시는 바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셨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던 우리 오빠에 대한 근심에 대해서도 적혀있었다.

교회에서 공과를 가르치고 독신 성인 모임에 참석하면서 느낀 행복하고 보람있는 경험에 대해서도 기록하셨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애리조나 주 딜콘의 나바호 인디언 보호 구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가르치면서 느낀 행복에 대해서도 쓰셨다. 그 대목을 읽으며 언제나 남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어머니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가끔은 누군가를 돕느라 일기 내용이 짝막한 경우도 있었다. 도움이나 격려가 필요하다고 여기신 모든 이들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가져다주곤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다. 복음에 대한 간증도 수 차례 적혀 있었다.

우리 딸이 다운 증후군과 그 밖의 관련 증상들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느끼신 슬픔과 염려를 적어 놓은 대목에서 나는 특히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 딸 데브라 수의 심장 절개 수술과 수술 후유증 때문에 나와 남편이 병원을 수 차례 오가는 동안, 어머니가 나머지 아이들을 먹이고 돌봐 주셨던 기간이 거의 한 달이나 되었다니! 그것도 일흔의 노령이셨는데 말이다.

내가 어머니를 필요로 할 때 그분은

나는 용감한 나의 어머니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느꼈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 준 어머니의 일기장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늘 내 곁에 계셔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할 때에는 어머니의 꾸준한 편지와

기도가 오랜 세월 동안 내게 큰 힘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날 밤, 어머니가 편히 주무실 수 있게 찬송가를 불러드리며 나는 항상 희생하시는 용감한 어머니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느꼈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 준 어머니의 일기장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



마태복음

5:14~16

구주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 삶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셨다.



세상의 빛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앞 속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은 그 한 사람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둠을 쫓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빛을 내는 등불이 없듯이 우리 혼자만을 위한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Build It Right,” *Tambuli* 1990년 11월호, 47쪽.

-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나라
-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 17 내가 올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밝혀 주신 촛불은 전세계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지켜봄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서



발견한 모범들을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일터, 심지어는 오락과 즐거움 속에 있는 우리 삶을 통해 산 위에 놓인 성읍과 같은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알고자 할 때 배울 수 있으며,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열방을 위한 깃발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 “A City Set upon a Hill,” *Tambuli* 1990년 11월호, 8쪽.

산 위에 놓인 성읍

고대의 도시들은 적의 침공을 막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산 위에 세워지곤 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이러한 도시들을 볼 수 있었고, 위험이 닥쳤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산 위에 놓은 성읍은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말

이것은 건조식품에 사용된 고대 그리스의 계량 단위(약 8.7리터)이며, 그만큼의 부피를 채는 데 쓰인 용기를 칭하기도 한다. 양동이처럼 커다란 용기로 촛불을 덮는 것을 상상해 보라.

착한 행실

찬송가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찬송가, 182장)의 가사를 읽는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복돋울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적어 보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사용할 시간을 계획한다. 작성한 목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편집자 주: 본 내용은 해당 경전 구절에 대한 완전한 해설을 제시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학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로마인들의

로마에 가면...

문화

따르라

이 청소년들은 의로운
생활에서 힘을 찾는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앤드류 비숍, 아리아나 히보,
리카르도 첼레스티니,
드니스 드 피오, 데이비드
보스코, 달리아 바르도, 새미
페이스

제니퍼 매디
교회 잡지

이탈리아 로마의 청소년들은 거세지는
세상의 영향력에 굳건히 맞서고 있다.



수

많은 인파로 붐비는 도시의 중심부, 상점들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히 왕래하고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다. 일터로 가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해 의논을 하고, 다른 이들은 정치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는다. 어린이들은 아침 햇살 속에서 뛰어논다.

고대 로마의 일상은 아마 이러했을 것이다.

로마제국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한 막강한 문명을 이루었다. 이 제국의 멸망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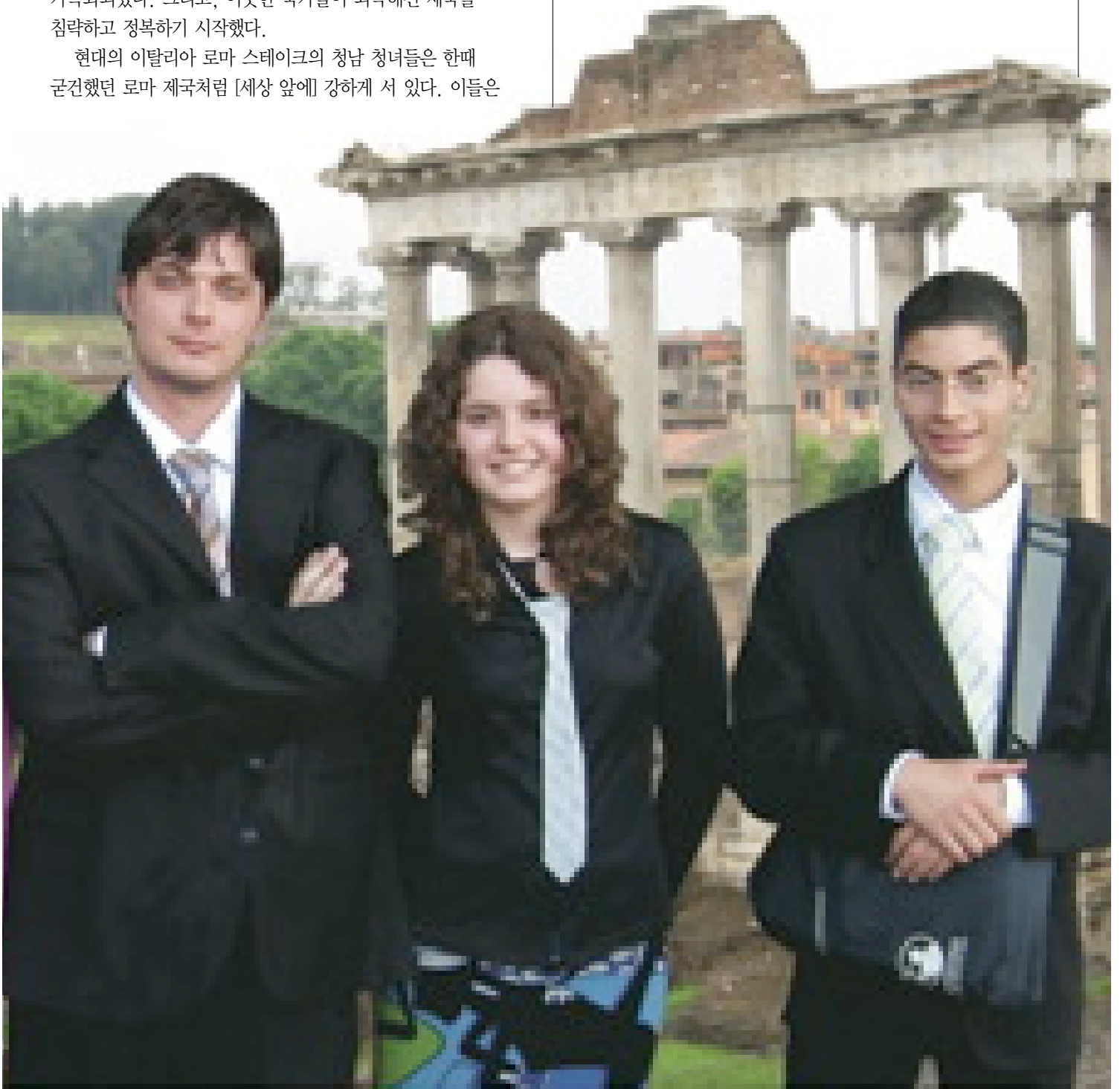
그러나 로마는 무너졌다. 내부적으로 제국의 쇠퇴는 권력과 부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과 의롭지 못한 생활 때문에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이웃한 국가들이 쇠약해진 제국을 침략하고 정복하기 시작했다.

현대의 이탈리아 로마 스테이크의 청남 청년들은 한때 굳건했던 로마 제국처럼 [세상 앞에] 강하게 서 있다. 이들은

사탄의 영향력에 변함없이 맞서,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그들의 영성을 강화한다.

로마의 선교사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로마서 1:16)라고 말했다. 현대 로마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고 대도시의 유적 속에서 이 젊은 후기성도들은 복음과 우정과 높은 표준 위에서 그들의 생활을 발전시키고 있다.



15세인 아리아나 히보는 이렇게 말한다. “제 친구들 중에는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들은 늘 저를 존중해 줍니다.”



동갑인 달리아 바르도는 “제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 분주한 이탈리아의 수도에서 이 소수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을 묘사하는 특징은 무엇인가? 이들은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친절하고, 의로우며, 복음대로 생활하고, 복음을 나누려는 진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열여섯 살인 새미 페이스는 회원이 본인 혼자 뿐인 집사정원회에서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는 노력의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이곳에서]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청년 회원입니다. 날마다 선교 사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열다섯 살인 드니즈 드 피오는 그녀의 오빠의 모범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한다.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오빠는 지금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저에게 가르쳐줄 것이 있어요. 그 점이 저에게 위안이 돼요.”



청소년들은 작은 일처럼 보이는 봉사나 선교 사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열일곱 살인 데이비드 보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경전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라(마태복음 5:16 참조)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말이죠.”

이탈리아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로마의 교회 청소년들은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 모습은 의롭지 못한 관행을 받아들여 도덕적으로 쇠락해 간 고대의 불행한 로마인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현대의

“제 친구들 중에는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들은 늘 저를 존중해 줍니다.”



청소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높은 표준을 지키고, 성전에 감으로써 그들의 영성을 강화시킨다.

드니즈는 복음대로 생활하면 세상이 주는 다양한 압력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음은 또한 어떻게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게 해 준다. 드니즈는 그것을 단순한 예를 들어 표현했다. “제 친구들이 하는 일들은 늘 제가 할 만한 좋은 일은 아니예요.”



열네 살 리카르도 첼레스티니는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때때로 혼자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이나 다른 도움이 필요해요.”



리카르도 첼레스티니가 말한 다른 도움 중 일부는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소책자는 청소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는다. 열세 살 앤드류 비숍은 일요일에 열리는 야구부 연습이나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리아나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권고를 따른다. 그녀는 육상선수이며 일요일에 경기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기도를 했고, 결정이 어렵기는 했지만 일요일에는 교회에 참석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데이비드와 리카르도에게는 정직에 대한 권고가 도움이 된다. “학교에서 커닝을 하고 친구들의 숙제를 베낄 기회가 있어요.” 데이비드가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정직은 그다지 중요한 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리카르도는 스포츠에서도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반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경기에 만족할 수 있죠.”

가깝고 먼 곳에서

그러나 로마의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갈 수 있는 횡수이다. 이탈리아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회원들은 스위스 베른 성전까지 가기 위해 차를 타고 거의 편도 아홉 시간을 여행해야 한다. 대리

“저는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일을 자주 할 수 없는 것이다. 성전이 멀리 있기는 하지만 로마 청소년들은 그들이 성전에서 받는 특별한 느낌을 간직하려고 노력하면서 성전을 마음 가까이 두고 있다. “성전에 있으면 집처럼 편안합니다.” 새미가 말한다. “저는 성전에 갈 때마다 조금씩 발전합니다.”

앤드류는 “성전에 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영을 매우 강하게 느낀다는 점이에요.”라고 말한다. “저는 조상들이 우리의 도움을 감사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달리아가 동의한다. “우리가 대신한 일을 그분들이 받아들인다는 느낌은 아름답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에요.”

아리아나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요약한다. “친구들의 말은 진실합니다. 성전은 지상에 있는 거룩한 장소이고, 스위스에 있건 스페인에 있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은 언제나 동일하며, 우리는 성전에 갈 때마다 성장합니다.”

지금 로마에는 한때 장중했지만 더 강한 힘에 의해 파괴된 고대의 건축물, 계단과 아치의 잔재들이 수없이 남아 있다. 반면 로마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복음과 경전, 가족과 표준, 성전을 한데 모아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에 맞설 견고한 간증을 쌓고 있다.

그러한 힘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새미는 이렇게 제안했다.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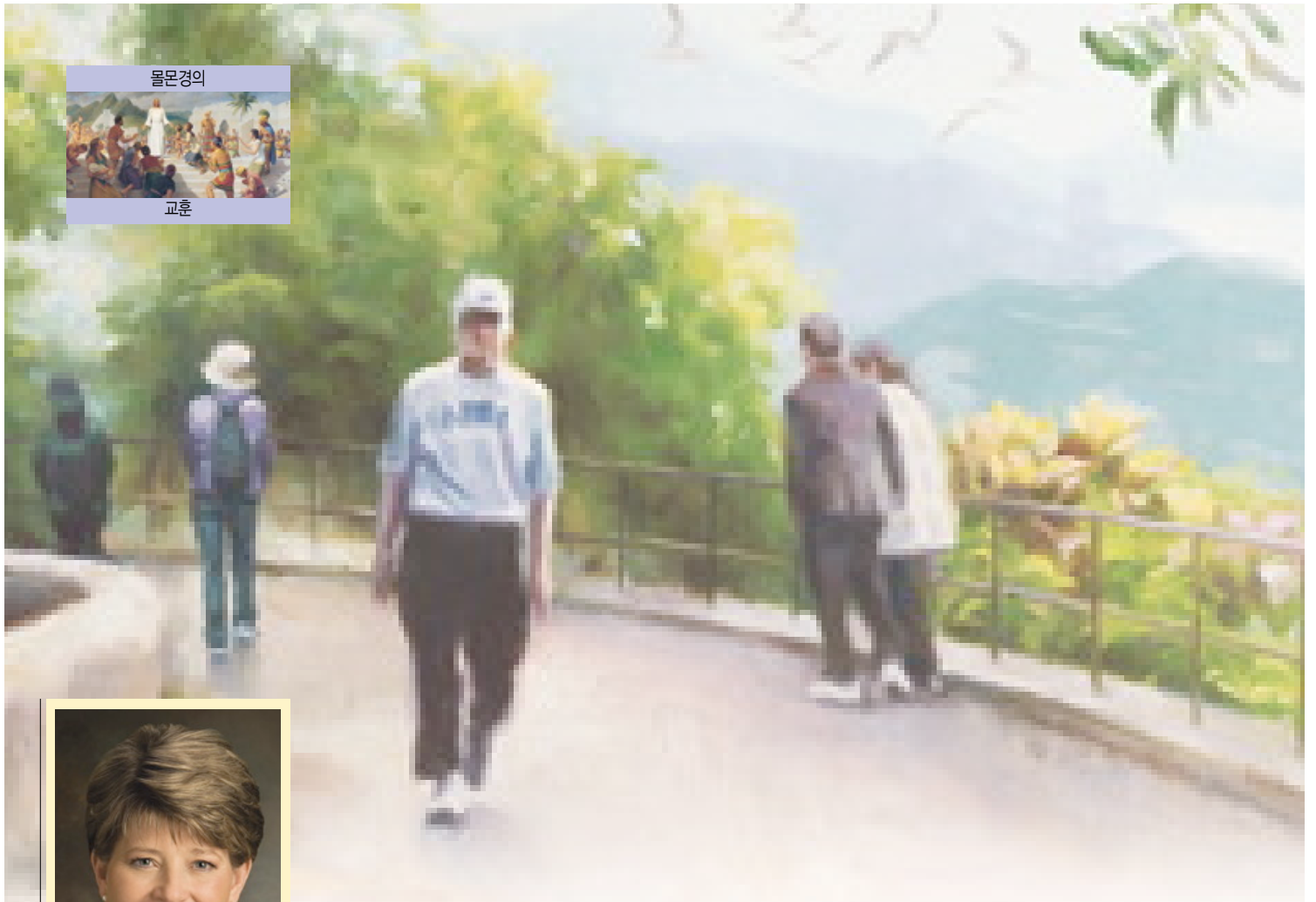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문경의



교훈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그분은 저의 제한된 필멸의
시야를 넓혀서 영원한
관점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봄

메리 엔 쿡
본부 청녀회장단 제1보좌

남편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봉사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홍콩의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완 차이 갑을 종종 걸어 올라갔습니다. 오르막길은 가파르고 걷기가 힘들었는데, 날이 덥고 습한 여름날엔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문득 제가 산책을 즐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책 내내 길만 내려다보았고,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이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래를 보고 있을 때 저의 시야는 가늘게 이어지는 산책로에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친 걸음을 따라 보이는 것은 똑같이 험소한 길의 행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앞에는 멋진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샛노란 꽃이 만발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태극권을 배우는 사람들이 수련하면서 색깔의 부채를 박자에 맞춰 펼치는 것도 보였습니다. 곧 우리는 목표지점인 스텝스 가(街)에 도달했고, 그 길 너머로 저는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봄

우리가 눈을 아래로 향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좁은 시야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기회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올려다봅니까?

건강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고, 이혼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역경들은 모든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회를 크게 하시고,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¹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이 원리를 이해했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음이라, 그들은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노고를 겪었[고] … 또한 영으로 많은 애를 [썼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여러 날 광야를 여행하며,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여 주께서 그의 영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사 그들과 함께 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가능하다면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올바르지 아니한 그들 조상의 전통의 비속함을 알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더라.”(엘마서 17:5, 9)

그리고 그들은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들어올리고 축복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의 금식과 기도, 신앙과 노력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초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저는 제 나이가 37세였을 때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남편에게 인봉되었습니다. 저는 독신으로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독특한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늘 스물 다섯 즈음에는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기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상황은 저의 계획과 많이 달랐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제 자신과 제가 처한 상황에만 골몰하여 산책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시각은 편협했으며, 삶은 어렵고 불공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잃었고, 자신감도 잃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한 중요한 순간, 모사이야의 아들들처럼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활동적이었고 “진리의 지식”(디모데전서 2:4, 디모데후서 3:7)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바랐습니다. 저는 경전공부에 더욱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영의 인도를 받기에 더 합당하게 생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나아갈! ... 용기를 얻[고]”(앨마서 17:12)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직업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독신 와드에서 가족 와드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소풍과 저녁식사, 성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와드 합창단에도 가입했습니다. 저는 감동됨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혜롭고 친절한 분이었고 저의 삶에 축복이 된 부름들을 주셨습니다.

가정 방문 교육과 상호부조회 활동을 통해 저는 많은 자매님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그들은 종종 저를 그들의 가족

활동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녀들을 돌봐 주겠다고 자청했고 그들의 가족을 저녁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가장 좋은 장소가 자신의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오빠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저는 그들의 생활과 학교, 그리고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향상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저의 생활은 더 흥미롭고 보람있게 되었습니다. 완 차이 갑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나무와 꽃과 새들과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제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그분이 저의 제한된 필멸의 시야를 넓혀 영원한 관점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저는 주님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사랑하시며, 저의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제가 그분을 바라보며 기회를 구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의로움과 행복을 선택”²할 때, 주님께서는 미래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01), 42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5쪽.



초등회 노래를 통해 받은 축복

제니퍼 에이 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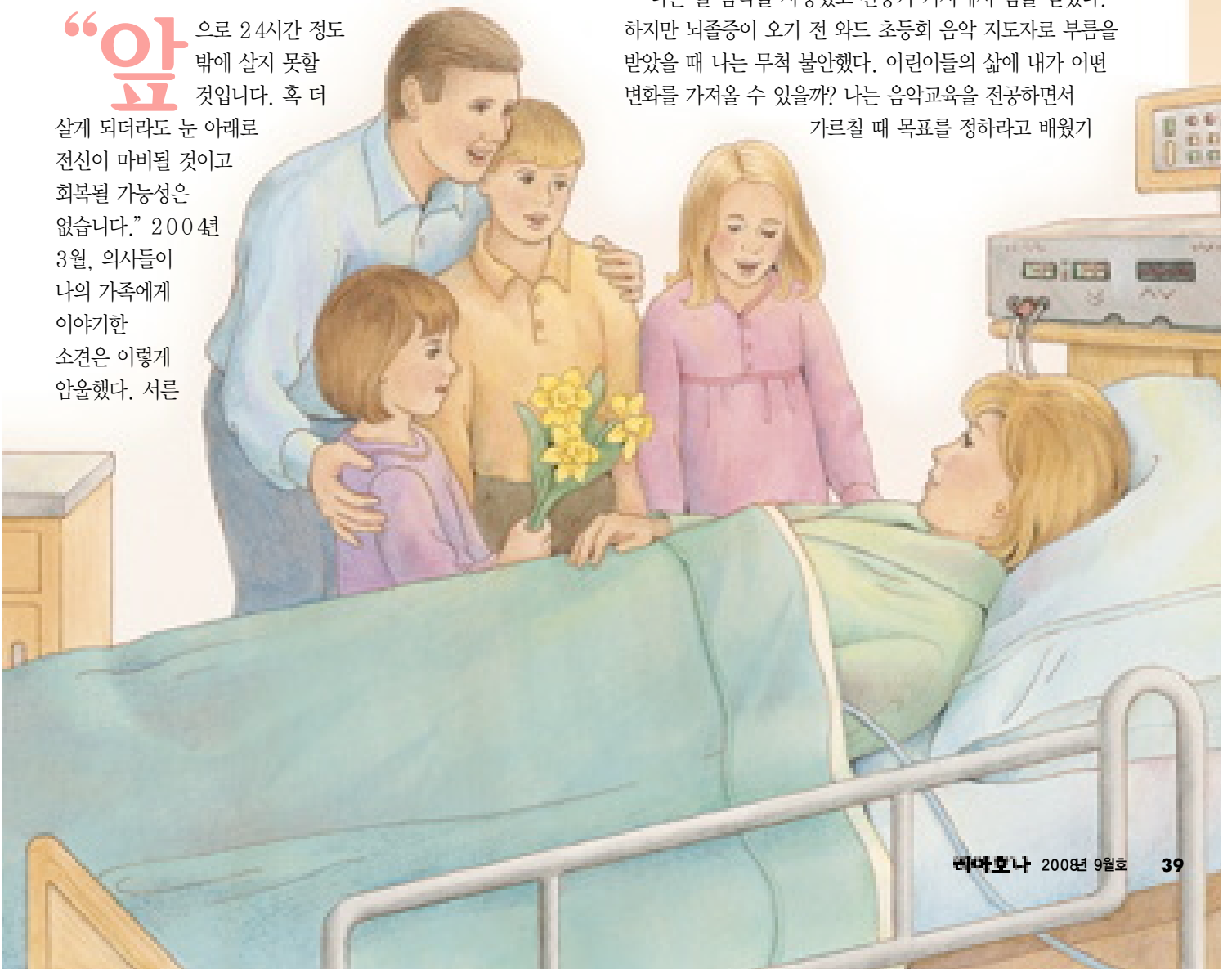
나는 음악 지도자라는 부름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부름을 통해 모든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음을 안다.

“안으로 24시간 정도
표 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혹 더

살게 되더라도 눈 아래로
전신이 마비될 것이고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2004년
3월, 의사들이
나의 가족에게
이야기한
소견은 이렇게
암울했다. 서른

살의 나이에 나는 뇌졸중을 겪었고, 그 때문에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어둡고 외로운 시간 동안 나는 초등회 음악 지도자라는 이전의 부름 덕분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나는 늘 음악을 사랑했고 찬송가 가사에서 힘을 얻었다. 하지만 뇌졸중이 오기 전 워드 초등회 음악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무척 불안했다. 어린이들의 삶에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나는 음악교육을 전공하면서 가르칠 때 목표를 정하라고 배웠기





초 등회 노래를
즐거 부르던
최근의 경험과
더불어 나는 그 노래들이
시련 속에서 나를 지탱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노래하는 동안 영을 느끼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어린이들과 함께 “나 하늘에서 살았네”¹와 같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 교실에 강하게 임재하시는 성신을 느끼고, 아이들이 가사에 대해서 묻는 깊고 진지한 질문에 놀라곤 했다.

내가 좋아하는 교수법 중 하나는 수화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나는 각각의 수화 동작이 어떻게 특정한 단어를 표현하는지에 대해 아이들과 토론하면 아이들이 노래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어린이들이 “주 예수를

뵈으려고”²를 수화와 함께 노래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 행복했다. 노래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확신이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종종 어린이들이 초대된 영의 수혜자가 되는 기분이었다. 나의 간증이 자랐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축복을 받고 있음을 느꼈다.

초등회 음악 지도자라는 나의 부름에서 오는 축복은 초등회 교실 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부름 덕분에 나는 매주 수업 준비를 위해 집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내 자녀들은 초등회 음악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노래 가사들은 평화롭고 고요한





영을 초대하여 아이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밤에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자녀들은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차 안에서 초등학교 찬송가 CD를 듣고 싶어했고, 나중에는 많은 찬송가들을 외우게 되었다.

그러나 음악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알게 된 것은 뇌졸중이 찾아온 이후였다. 초등학교 노래를 즐겨 부르던 최근의 경험과 더불어 나는 그 노래들이 시련 속에서 나를 지탱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절망스럽던 시간 동안 나는 “어린이의 기도”⁴를 머릿속으로 불렀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1절 가사 “하늘 아버지, 정말인가요?”를 외쳤을 때, 2절의 내용처럼 그분은 자비롭게 확신을 주셨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이다. 나는 참으로 큰 힘과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회복 기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은 내 병실에서 가정의 밤을 했고, 함께 자주 “사랑의 기도”⁵를 불렀다. 그 노래는 내가 초등학교에서 가르친 마지막 노래였는데, 내가 가르친 노래를 자녀들이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은 특별했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동안 나는 노래 속에 등장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공감했다. (나 역시 무릎 꿇을 수 없기를 참으로 바랐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녀의 간구는 나의 간구이기도 했다. 우리 가정에 신권의 권세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이러한 나의 생각을 가족에게 말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이 초등학교 노래가 나의 감정을 표현해 주었다.

뇌졸중을 겪은 후로 거의 4년이 흘렀고, 나는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회복되었다. 나는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된 오른팔로 컴퓨터 자판을 누르고 전동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초등학교 부름 중에 처음 배웠던 수화를 변형해 의사소통을 한다. 그래서 여전히 자녀들과 초등학교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나는 늘 자녀들의 침례식에서 노래를 하고 싶었다. 드디어 2005년 8월에 큰 아들 잭이 침례를 받았다. 나는 남편의 부축으로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건반을 하나씩 눌러 “나 침례받고 나면”⁶을 연주했다. 침례에 대한 나의 마음 속 깊은 느낌을 음악을 통해, 그리고 잭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기뻐다.

내가 초등학교 음악 지도자로 봉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 부름으로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었다. 그러나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초등학교 노래는 내가 복음 원리들을 더 잘 이해하고, 간증을 강화하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끈기 있게 견디는 힘을 축복으로 주었다. 초등학교 노래들의 가사와 음률은 단순할지 모르지만 각각의 노래가 가진 메시지와 힘은 참으로 분명하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특정한 부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그분이 주시는 영감을 믿어야 한다. 나는 뇌졸중이 찾아오기 전까지 초등학교 음악 지도자로 봉사했던 것에 참으로 감사한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나는 그 노래들을 통해 복음에 대한 나의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내 자녀들이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들의 간증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들이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초 등회 노래들의
가사와 음률은
단순할지
모르나 각각의 노래가 가진
메시지와 힘은 참으로
분명하다.



주
1. 리야호나, 1999년 4월호, 진5쪽.
2. 어린이 노래책, 40~41쪽.
3. 물품 번호 50428.
4. 어린이 노래책, 6~쪽.
5. 어린이 노래책, 102~10쪽.
6. 어린이 노래책, 53쪽.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행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제니 피데릿 데 라 마자

나에게는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도움이 되었던 어린 소녀 시절의 경험이 한 가지 있다. 나는 칠레에 있는 작은 마을인 레나이코 출신이다. 그때 루비 자매님, 바로 내 어머니가 초등학교장이었던 때를 기억하면 마음이 몽클해진다. 당시 우리 지부는 무척 작았고, 나는 지부에 참석하는 유일한 어린이였다. 어머니는 공과 교사였다. 일요일 아침, 우리가 교회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안녕, 제니, 내가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란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매주 반복되었다. 우리는 함께 개회기도를 하고 노래를 불렀고, 어머니는 나에게 공과를 가르치셨다.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저활동인 어린이들을 방문하셨다.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우리 귀염둥이들”이라고 정답게 부르셨다. 종종 우리가 그 어린이들이 길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면, 어머니는 차를 멈추고 명랑한 목소리로 “얘들아, 일요일에 교회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 대부분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늘 어머니와 나뿐이었다.

때로 나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했다. 나는 “이제 그만 하세요, 엄마. 저 아이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다정하게 “나는 내 부름에 책임이 있어. 끈기있게 그 책임을 수행해야지.”라고 대답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카를로스라는 소년이 교회에 와서 “루비 자매님,



제가 오겠다고 말씀드렸죠?”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부에 참석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는 두 명이 되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카를로스가 반에 참석할 때마다 나에게 “보렘, 제니야. 우리는 끈기를 가져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카를로스는 알렉시스라는 소년과 함께 오기 시작했다. 우리 셋은 함께 노는 것이 좋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친구로 지내고 있다.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2년 후에 그 부름에서 해임되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떠날 무렵에는 35명의 어린이들이 매주 교회에 참석했다. 어린이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는 것은 참 특별했다. 어머니가 해임되신 지 10년 이상이 지났고, 이곳 교회는 더 커졌지만, 35명의 어린이를 초등학교에 오도록 만든 어머니의 기록은 아직 아무도 깨지 못했다.

현재 나는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나는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나는 이 훌륭한 부름에 참으로 감사하며, 어머니께서 보여 주신 끈기의 모범에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행하면 그 나머지는 그 분께서 해 주신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

어 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는 차를 멈추고
명량한 목소리로 그들을
교회로 초대했다.



세대에서

내가 받은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물 문경의 첫 문장을 읽어 보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과테말라 팻지치아 스테이크 파치톨 와드의 17세 소년 후안 오도네즈와 그의 열다섯 살 난 여동생 마이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후안, 마이라, 그리고 그들의 일곱 명의 형과 누나들은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들에게서 조상의 언어인 각치켈어를 배웠고, 그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고 토끼야를 만드는 것과 같이 가족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웠다.

그러나 이 가족이 니파이의 가족과 닮은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후안과 마이라의 부모님은 물질적인 생존 기술을 물려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비밀에 대한 지식”(니파이전서 1:1)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십대들이 복음을 물려줄 리하이와 새라이아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반면, 후안과 마이라, 그리고 다른 모든 회원의 자녀들과 같이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복음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적용하며, 후대에까지 전달해 주는 니파이와

같은 학습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정보를 들었으면서도 스스로 진리를 찾고자 하지 않고, 따라서 후손들에게 복음을 물려주지 못하는 레이맨이나 레뮤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물려받았는가?

후안은 몇 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후안의 아버지 호엘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저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보면서 배우고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일하지요.”

마이라가 토끼야를 만드는 법을 배운 것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어머니와 언니들이 만드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

그러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 것은 쟁기질, 씨 뿌리기, 그리고 토끼야 만들기만이 아니다. 마이라의 어머니 카멜라는 토끼야를 반죽하고 빚어내면서 딸의 성품을 빚어내고 있었고, 아버지 오도네즈 형제가 준비를 하고 씨를 뿌리거나 땅을 경작하는 동안 그는 아들 후안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녀들은 부모가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방식도 보았다. 그리고 부모들은 일하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주제로 자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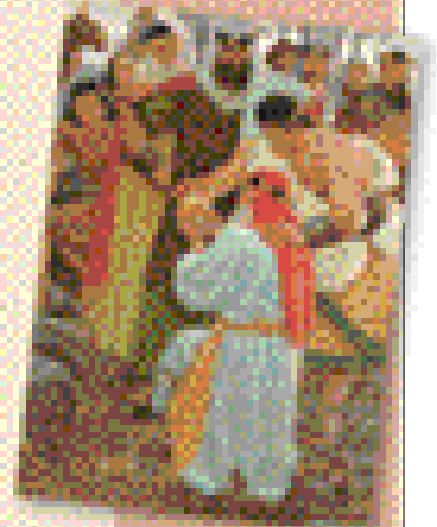
대화했다.

그러나 관찰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직접 행하는 것이 늘 전부는 아니다. 물론경에 등장하는 첫 가족들 중 레이먼과 레뮤엘은 니파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내용을 똑같이 들었고, 그들도 아버지가 명한 일을 가서 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후안과 마이라가



후 안(맨 아래 왼쪽)과 마이라(왼쪽)가 그들의 부모님(맞은편 페이지)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은 그들의 물질적인 생존뿐 아니라 영적인 생존에 있어서 중요하다.

세대로





가진, 배우려는 열의였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후안과 마이라는
과테말라 시에서 몇
시간 떨어진
팻치치아의 카치켈
마을에 산다. 그들에게

또띠야를 사거나 밭 가는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후안과 마이라는 카치켈어를 배워야 했다.

그러나 모두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는 카치켈어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
언어는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전해 내려 왔다.
그러나 후세대 중에는 이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지
않거나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배우려는 열의는 언어를 배우는 일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리하이는 그의 가족이
스스로 복음이 참됨을 알기를 바랐지만 가족
모두가 알고자 하는 마음과 열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니파이전서 8:12, 17~18 참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니파이는 아버지가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 외에도 많은 것을 스스로 알고자
간절히 원했다. (니파이전서 10:17 참조)
레이맨과 레뮤엘은 아버지의 말을 따를 때 조차도
불평을 늘어 놓았다. (니파이전서 2:11~12 참조)
그들은 스스로 알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간증을 얻음

“간증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간증을

가진 채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증은 훌륭한 교사들의
모범이 없다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신앙으로 가르침”, 리아호나, 2003년 9월, 16쪽.

관심이 없었고,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심이니라”(니파이전서
15:8~9 참조)라고 말했다.

끊어진 고리가 되지 않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오도네즈 부부는 종종 그들의
자녀들이 귀를 기울일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아이들이

순종할까? 니파이처럼 스스로 알고고 할까?
아이들이 복음을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줄까?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오도네즈 부부에게는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의 장성한 자녀들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다. 어린 자녀들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후안은
“가끔 부모님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부모님은 저에게 콩 요리법과 또띠야
만들기만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라고
마이라는 말한다.

스스로 복음을 실천함

여러분의 부모들이 복음을 물려줄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또는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가족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일한 사람으로 지내거나 홀로 활동적인 복음 생활을 하는 것은 외로운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교회에는, 그리고 경전에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얼마 일세가 젊었을 때 그는 아비아다이가 가르친 복음을 받아들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성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다. 그러나 그가 복음대로 생활하고 복음을 가르칠 만큼 담대했기 때문에



곧 다른 사람들도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신앙 덕분에 축복을 받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신앙인들이 생겨났으며 그들의 모범과 지도력이 교회에 큰 힘이 되었다.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혼자라고 느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다.

“교회의 초기 시절 이래로 아마도 오늘날처럼 제1세대가 교회 총회원 중에서 이렇게 큰 비율을 차지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200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정원회의 폴 비파이퍼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자 축복입니다. ...”

“여러분은 제1 세대 회원으로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들이 교회 회원이건 아니건 간에 가정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구주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좋은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의 충분한 신앙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인내하고 친절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선하고 올바르게 행함으로써 여러분은 충실함과 의로움의 본보기를 확립할 것입니다. 그러한 본보기는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첫 번째 세대”,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11~12쪽)

따라서 여러분이 첫 번째 세대이건 다섯 번째 세대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을 향유하는 수많은 세대 사이의 고리를 만들고 연결할 수 있다.



간증을 얻다

저는 우리 가정에 *리아호나*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그 안에서 찾았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2007년 9월호)은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 영을 느꼈고,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간증을 해야 하고, 그럴 때 영은 물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도록 해 줄 것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제네스 엘 날로나, 필리핀

모두를 위한 세 가지 메시지

저는 매일 교회 잡지인 *리아호나*에 대해 더욱 감사함을 느낍니다. *리아호나*는 제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경우에서 *리아호나*는 옳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007년 4월호에 실린 말씀 “청년 성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에서 얼 시 텅기 장로님은 청년들에게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분은 오늘 지혜로운 결정을 내림으로써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대신 문제에 맞설 수 있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55세이지만,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가 크리프코, 우크라이나

그 잡지가 어떠셨어요?

제 남편은 페루 전역에 매달 *리아호나*를 배부하는 책임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그는 경비실에서 일하는 비회원인 사람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들이 “차에 신고 가는 것이 됩니까?”라고 물으면 그는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잡지입니다. *리아호나*라는 잡지예요.”

그들은 종종 호기심을 갖고 잡지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했고, 남편은 늘 여러분의 잡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리아호나*를 나눠주었습니다. 그가 늘 같은 장소들을 다니기 때문에 다음 번에 그 곳에 가면 “잡지가 어떠셨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리아호나*를 읽었다고 말하면 그들의 이름을 물어서 선교사들이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회에 대해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가 성전을 막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제 남편은 전에 경비실에서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침례를 받았고, 이제 가족들과 인봉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훌륭한 기사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글이 우리들 모두를 발전하게 하며, *리아호나*에서 읽는 모든 내용이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줍니다.

아나 메자 데 올로지오, 페루

회개의 중요성

저는 상호부조회의 넷째 주 공과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공과의 주제는 *리아호나* 2007년 5월호에서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이 주신 말씀인 “회개와 개종”이었습니다. 공과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리아호나* 읽는 것을 고대합니다. *리아호나*를 통해 제가 배우고 느끼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익명, 일본

리아호나는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저는 34년이 넘게 *리아호나*를 읽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한 기사와 복음대로 살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는지에 대해 읽을 때마다 저는 종종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리아호나*의 모든 기사를 좋아하지만 저는 특히 제프리 알 홀런드 사도님의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움”(2007년 10월호)이라는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경전과 함께 *리아호나*는 우리 가족의 인도자 역할을 해 줍니다.

익명



애독자 편지를 liahona@ldschurch.org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십시오.

*Liahona*Comment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내용은 길이 조정이나 명확성을 더하기 위해 편집될 수 있습니다.